

의학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네이처 메디슨에 제1저자로 논문이 실린 이 씨를 만나 연구 과정과 목표를 들어봤다.



현장대 한 실험실에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학교 실험실 안전 점검을 해본다.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창간 70주년 기념호

대학주보

교양의 본질 질문한 후마 교육 15년 철학은남고방식은장체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창간 70주년 특집 기획

① 후마의 성취와 남은 과제

2010년, 국내 최초로 교양교육을 단과대 수준으로 독립시킨 파격적 실험의 결과물이 등장했다. 후마니 타스칼리지는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기치로 내걸며, 인문학을 중심에 둔 교양교육으로 대학 교육의 본질을 다시 묻고자 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고, 후마는 설립 15주년을 맞이했다.

당시 교육 철학과 방식은 여전히 시대에 부합하는지, 우리신문은 창간 70주년을 맞아 경희 교육의 한 축인 후마의 성과와 한계를 조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후마의 지난 15년 성취와 남은 과제’를 주제로, 후마 설립위원으로 참여했던 우기동(철학) 미래문명원 교수, 후마 2대 학장 유정완(영어영문학) 교수, 김진해(국어국문학) 후마 부학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실용학문 중심 흐름 속 단진 질문 “개인의 성숙과 공공선 동시 추구”

2010년 9월 17일, 경희대는 국내 고등교육사에 의미 있는 전환점을 찍었다. 후마의 등장은 실용 학문과 취업 중심의 대학 교육 흐름에 비판적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삶의 의미, 윤리적 태도, 공동체의 가치 등 인간 존재의 본질을 묻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 시도였다.

후마는 자기 성찰과 시민의식 함양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인문학 기반의 교과과정을 구축했다. 김 부학장은 “전공과 상관없이 삶을 살

아가는 데 필요한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꿈꿨다”며 “당시 입문 수준에 머물던 교양교육을 심화·확장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시민교육을 설계한 우 교수는 “후마 철학은 개인의 내적 성숙과 공공선 추구라는 두 축이 균형을 이루는 데 있었다”며, “평생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후마 2대 학장을 역임한 유 교수는 후마 교육을 “경희 정신의 교육적 실현”이라 평가했다.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라는 경희대의 교훈은 결국 인간의 품성과 인격에 대한 선언이며, 후마는 이 가치를 교실에서 구현하려는 실험이었다.

교육 방식 변화 목소리 높아져 “전환 설계 교육 필요”

출범 이후 후마는 교양과목 개편과 새로운 교과목 도입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모색해왔다. 대표적인 중핵교과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 1·2’를 비롯해, 과학과 인문을 융합한 ‘빅뱅에서 문명까지(빅문)’, 자기 주도 학습을 강조한 ‘독립연구’ 과목이 그 결과물이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대학영어 통합과정 등 실용적 과목도 점진적으로 편성됐다.

2019년에는 대대적인 교과과정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우리가 사는 세계’와 ‘시민교육’을 ‘세계와 시민’으로 통합하고, 글쓰기 과목도 ‘성찰과 표현’, ‘주제연구’로 새롭게 재편했다. 지난해에는 배분 이수 체계를 7개 분야에서 5개로 단순화하고 과목명과 이수 구분도 일괄 조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실제 방식은 여전



창간 70주년 기념 일러스트

1955년 5월 12일 창간한 대학주보가 올해로 창간 70주년을 맞이했다.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며 경희의 역사를 기록해 온 지 어느덧 70년. 70년이라는 시간은 대학주보 기자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경희 구성원과 동문 모두가 함께 써 내려간 공동의 역사다. 우리는 이 소중한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언제나 당신 곁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일러스트=37기 김중범 동문)

히 출범 당시의 프레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우 교수는 교육 방식의 고착화와 교수진의 타성화를 함께 문제 삼았다. “형식만 남고 내용은 정체된 상태”라며, “학생의 문제의식과 삶의 현실에 기반한 ‘전환 설계 교육’이 지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 교수는 후마가 주관하는 ‘사회혁신학기제’를 좋은 예로 들었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서 학생이 학습하며 지역 문제를 직접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실천형 프로젝트로, 학습과 경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 교수는 후마 교육의 목적성이 사라지는 것을 경계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교육해야 하는데, 지금의 후마 교육은 방향성을 상실한 듯 보인다”며 “각 강의가 후마 교육의 목적과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범 간 불일치, 절대평가 논란 드러나는 구조적 한계

후마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철학이나 방식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현실적인 구조와 운영 면에서도 다양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절대평가 제도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그 사례다. 지난해 서울캠은 교양과목에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고자 했지만, 국제캠은 이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단계적 도입’을 주장해 결국 논의는 결렬됐다.

‘빅문’ 과목의 운영에서도 양 캠퍼스는 다르다. 서울캠은 공통 교재와 플립 러닝 방식의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국제캠은 교수마다 자율 커리큘럼을 선택해 학생 간 교육 경험의 차이가 크다. 이는 후마가 표방하는 통합적 교양교육의 취지와 어긋난다.

‘세계와 시민’ 과목에 대해서도 실천적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 교수는 “답사나 현장 학습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사회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하는 교육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연구’ 과목 역시 자율성과 탐구를 강조하나, 실질적인 학문적 성과로 이어지기엔 제약이 많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한 학기 내에 학생이 주제를 정하고 연구 계획을 세워 발표까지 진행하기엔 시간과 시스템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교양 필수 및 배분 이수 기준의 축소도 문제로 지목된다. 유 교수는 “예전엔 7개 영역 중 5개 이상을 이수해야 했지만, 지금은 3개만 들어도 졸업 요건이 충족된다”며 “이는 교양교육의 필수성과 중요성이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후마는 현재 크게 세 개의 영역의 교육을 제공한다. 인간의 가치탐색, 세계와 시민, 성찰과 표현, 주제연구, 빅뱅에서문명까지를 포함하는 교양 필수, 5개의 분야로 나뉜 배분 이수, 그리고 자유이수다. 앞으로 우리신문은 15주년을 맞은 후마가 각 영역별로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을 위해 어떤 교육법을 택하는 것이 좋은지, 남은 과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볼 것이다.

2 창간 70주년 특별 대담-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경희의 정신, 대학주보의 기록으로 남다

“대학언론, 현실 넘어 꿈꾸는 자 역할도 해줬으면”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대학주보가 창간 70주년을 맞이했다. 경희학원 조인원 이사장은 학부 시절부터 교수, 총장, 그리고 이사장까지 다양한 위치에서 약 40년 동안 대학주보와 함께했다. 지난 7일 만난 조 이사장은 학생기자들과 함께하는 오랜만의 소통에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대학주보의 독자이기도 했고, 발행인이기도 했던 조 이사장과의 대담이다.

Q. 대학주보가 창간 70년을 맞았습니다. 학부 시절부터 교수, 총장 등 다양한 위치에서 경희와 함께한 이사장께 대학주보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회고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랜 기간 대학주보와 함께 해왔어요. 대학 졸업 후 군 복무 3년, 대학원 유학 생활 8년, 타 대학서 강의하던 2년을 제외하면 40여 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인연을 맺어 왔습니다. 특히 총장 재임 시절 경희의 역사를 살피면서 알게 된 대학주보의 활동상은 비교적 기억에 뚜렷해요.

시대를 일별해 보면, 한국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에 건립된 신생 대학의 비전과 포부, 그 후 30~40여 년 지속된 세계시민·민주시민에 관한 관심, 그리고 지난 20~30년 이어져 온 문명사적 전환의 시대를 열어가 갈 대학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문제의식. 그런 경희의 역사와 함께, 대학주보는 그간 학사, 행정, 구성원 복지, 대학 문화, 국제화와 같은 다양한 사안에 걸쳐 훌륭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해요. 창간 70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Q. 대학주보가 대학 언론으로 담당해 온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께서 보시는 대학주보 역할 중 가장 마음이 가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희 역사와 함께해 온 대학주보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요. 하나는 경희의 미래 지향적 발전상을 구성원과 함께 만들어 가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학문과 지성의 전당인 대학이 마땅히 지녀야 할 대학의 공적 책무에 관한 관심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조 이사장은 대학주보의 역할에 대해 “하나는 경희의 미래 지향적 발전상을 구성원과 함께 만들어 가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학문과 지성의 전당인 대학이 마땅히 지녀야 할 대학의 공적 책무에 관한 관심으로 이해해 왔다”고 말했다.

일화를 하나 소개할까 해요. 총장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대학 연찬회가 있었어요. 5박 6일간 ‘소통과 창조의 문화세계, 개교 60주년을 향하여’를 주제로 진행했어요.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이 연일 대학 발전을 위해 열띤 대화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을 대학주보가 동행 취재했지요.

또 다른 일화는 2011년입니다. 경희가 ‘세계평화의 날’ 제정을 유엔에 제안해 유엔 총회가 이를 공식 채택한 지 30주년이 되던 해였어요. 뉴욕 유엔본부와 평화의 전당이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돼 “Give Peace Another Chance”라는 주제로 국제회의가 개최됐어요. 행사 전 과정을 취재했던 대학주보는 많은 지면을 할애해 이를 소개했어요.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 많은 구성원이 대학주보를 통해 그 소식을 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처럼 대학주보는 늘 경희의 역사와 함께했어요. 구성원의 문제의식과 필요, 우리 사회와 시대를 향한 경희인의 목소리를 지면에 담아 왔지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Q. 독자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대학주보의 친밀한 독자라고 들어왔습니다. 어떤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총장 시절, 주보가 발간될 때 거의 매주 대학주보를 읽어봤지요. 구성원, 특히 학생 관심사가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고 개선책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그런저런 생각과 함께 기사, 칼럼 등을 접했어요. 때로는 오늘처럼 대담을 통해 대학 현안에 관한 생각과 시대의 나아갈 길에 관한 생각을 주고받던 기억도 납니다. 대학주보가 대학 행정과 구성원을 잇는 훌륭한 매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아쉬운 부분’은 없지만, 시대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더 주목했으면 하는 방향은 있어요. 문명사적 관점에서 향후 몇 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시대 전환의 기류는, 말 그대로 전환적이죠. 온 나라와 인류의 실존적 삶이 걸려 있는 만큼, 시대변화에 주목하는 일은 우리 일상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에 관한 기획물을 연재한다면, 예단하기 쉽지 않은 미래를 헤쳐가야 할 미래세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Q. 저희 신문에 총장 취임 기념 인터뷰를 하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대학주보 1375호 1면/2006.11.27.) 당시, 대학의 학술기관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대학 행정에 분권과 자율 체계를 정착시키고 싶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어떤 부분에서 성취가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 아직도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 본연의 책무인 학술 연구의 탁월성에 관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무엇이 학문의 탁월성인지, 당시 제기된 사회적 관점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때 판단은 한편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학문의 현실적 탁월성은 잘 관리해 가면서, 궁극적 목표인 인간과 세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

다른 하나는 이를 기반으로 배움과 나눔, 지구적 실천의 장을 열어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대학 행정의 역동성, 미래 지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지요. 그 후 생각과 논의를 종합해, “학문적 권위의 재건”, “소통의 학문 세계”, “화합과 창조 의 미래 사회”라는 대학 운영 기조를 세웠어요. 속의 끝에 대학 본부는 대학 행정의 운영 기조를 잘 관리하고, 단과대학은 학문과 교육, 실천 부문의 실질적 내용의 깊이를 더해간다는 방향에 중지를 모았어요.

그 기간 경희는 학술과 교육, 실천 면에선 적지 않은 성취를 이뤘다

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지요. 좀 더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대학 행정, 전문 행정을 위한 문화와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해요.

Q. 위와 관련하여 2008년 11월 대학주보와 함께 한 인터뷰(대학개혁 5대 프로젝트/대학주보 1422호 5면/2008.11.10.)에서는 연구와 교육, 복지, 국제화, 행정 등 5개 분야에서 발전의 청사진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우리 신문 역시 이 주제로 18회의 연재를 의욕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노력이 지금 경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008년 이후 약 5년간 경희는 역동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의 훌륭한 교수진을 이례적으로 많이 모셨고, 교수·학생 연구 지원을 확대해 갔어요. 후마니타스 칼리지, 미래혁신원, Global Collaborative, Space 21 사업도 그 기간 출범했어요. 대학 국제화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 Conference of NGO(CoNGO)와 같은 세계 시민사회 협의체와 세계시민포럼(World Civic Forum, WCF), 세계시민청년포럼(World Civic Youth Forum, WCYF)을 개최했어요. 그 기간 대학주보 역할도 대단히 컸어요. 경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획 연재물을 구성원과 많이 공유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모든 노력이 모여,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당시 경희는 국내 외적으로 가장 빠르게 도약한 대학 중 하나였어요. 학계 평판, 사회적 평판도 많이 개선됐지요. 그 기간 대학 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았던 구성원 모든 분의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 체험했던 경희의 역량과 저력이 더 크고 멋진 경희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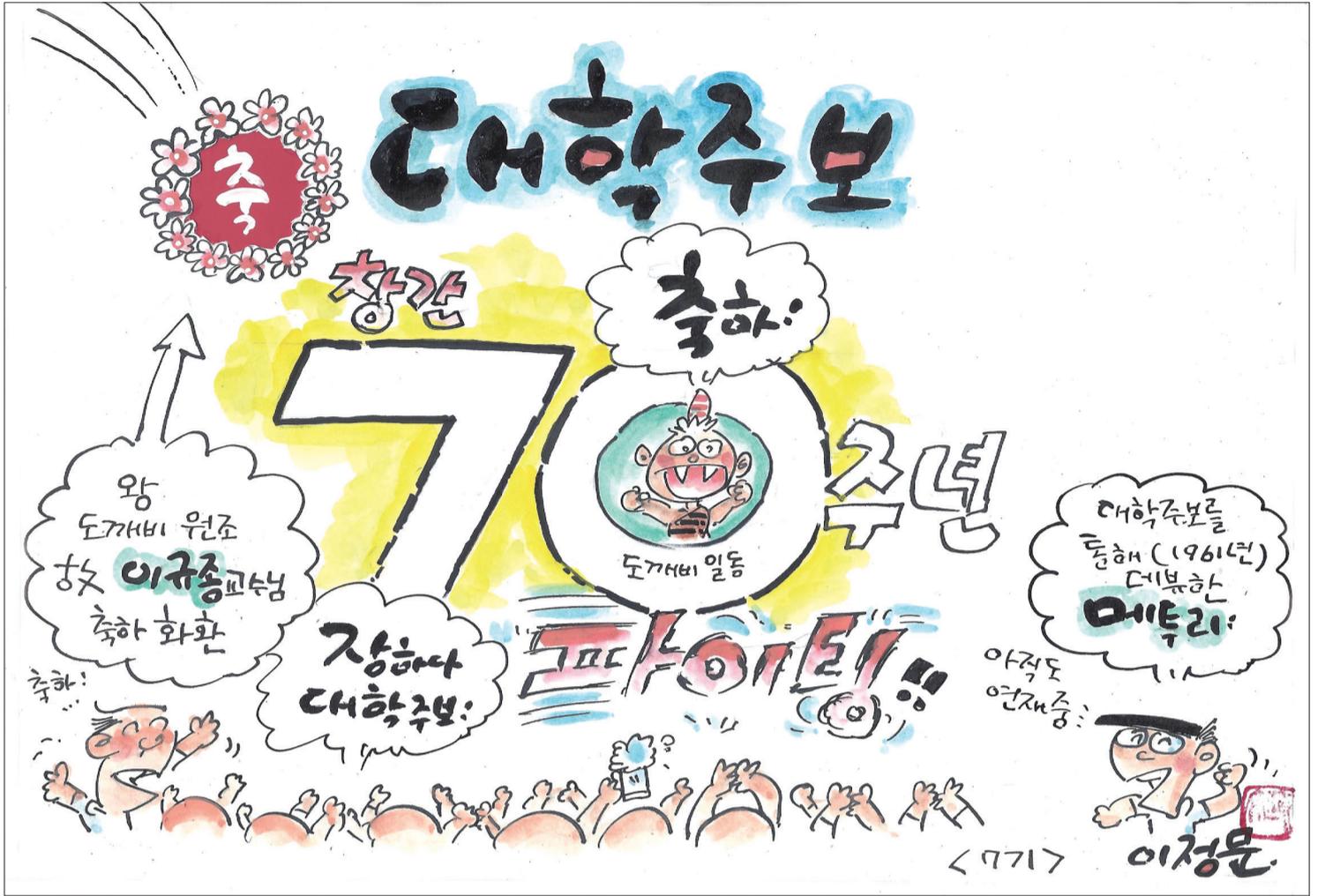
Q. 이사장께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대학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생각을 좀 더 풀어써 들을 수 있을까요.

3면에 계속 →

특별기고
70주년 축하 일러스트

이정문 만화가
(대학주보 7기)

창간 70주년을 맞아 대학주보 7기, 만화가 이정문(상학) 동문이 축하 일러스트를 대학주보에 보냈다. 이정문 만화가는 1959년, 만화 <심술참지>로 데뷔했고, 특히 대표 캐릭터 '심술통'을 이용해 다양한 작품활동을 펼쳤다. 대표적으로 <심술가족>, <심술통 만화일기>, <심술통 만화 탈무드>, <심돌이와 심숙이>, <만화 천자문> 등이 있다. 이외에도 <파이팅 손오공>, <철인 캠타우> 등이 있으며, 1993년에는 한국만화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면에서 계속 →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문명사적 중층 위기, 복합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으리라 생각해요. 지구 행성의 기후 위기, 핵, 파괴적 과학 기술의 유례 없는 발전 속도. 이런 시대의 난제가 우리가 당연시하는 일상을 일순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와 함께 일자리, 양극화, 정치·사회적 혼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공유해야 할 미래가치의 부재 문제가 현대사회의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1965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된 세계대학총장회 창립총회에서 기조연설자로 초청된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난제 해결에 나라와 정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 이야기는 지금도 유효해 보여요. 이제 “진화, 혹은 절멸” “평화, 혹은 붕괴”라는 절박한 화두가 시대적 삶과 함께하고 있어요.

대학은 미래세대를 위해 존재합니다. 미래세대는 과거와 크게 다른 미래를 살아야 하죠. 기후변화는 문명 붕괴를 초래할 수 있어요. 초인공지능의 임박한 출현 가능성은 전혀 없는 혜택을 주겠지만, 일자리 붕괴, 양극화 심화, 인간 무용론의 세계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모두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이며 미래세대의 미래를 위한 실천적 노력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Q. 그 연장선에서 대학주보가 언론으로서 가져야 할 '문제의식', 그리고 구성원에게 기사로 제안할 '실천적 대안'에 대해 말씀해 주실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언론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언론은 왜 인류의 생존과 실존이 걸린 시대의 문제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는가요?' 답은 간단했지요. '판매 부수'. 그 답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 현실을 상징하는 아이콘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답안에 우리의 미래를 위협할 시대의 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어느 원로 학자는 이런 말을 전했어요. “세계관(world-view)은 버려진 장난감이 아닙니다.” “시대의 현실을 만들어 갑니다.” 세계관, 혹은 세계를 읽어내는 관점과 안목이 평화와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열 수도, 붕괴의 길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게 될지. 시민 개개인의 의식과 선택에 달려 있겠지요.

경희와 대학주보는 그런 역사 인식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어요. 경희의 설립 서사인 “문화세계의 창조”, “학문과 평화”의 전통. 그 길과 함께 경희는 정체성을 일구어 왔습니다. 이제 그 위에 하나를 더한다면, 현실 너머 존재해야 할 몽상가적 꿈을 현실로 만드는 전환적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역사가 말하듯이 위기 너머 세계는 또 다른 현실을 꿈꾸는 자, dreamers에 의해 펼쳐져 왔습니다.



약한 시간 여의 대담 이후, 조 이사장은 대담에 참여한 대학주보 기자와 함께 생활과학대학 앞 입간 교실에서 한 시간 여의 이야기를 더 나눴다.

전환적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선 몇 가지 사안이 중요해 보여요. 경희대는 고등교육 기관입니다. 학술 연구를 통해 진리를 탐구해 갑니다. 이를 위해 쌓아 올린 지식이 자신을 위해, 세계와 미래를 위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성찰하는 '사유의 여백'은 중요합니다. 또 다른 실천적 과제는 유례없는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전환의 시대를 맞아 대학의 근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실용과 실익을 위한 전문 지식을 쌓아가면서도, 통합적이고 전일적(全一的)인 접근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위기와 기회를 함께 관리하는 지식과 지혜의 창조적 융합도 중요하겠지요.

Q. 대학주보와 직접 인터뷰를

했던 기록이 2017년 5월이 마지막입니다. 대학주보를 통한 구성원과의 공감에 짧지 않은 공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신문을 통한 구성원과의 만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전체 학생 구성원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구성원과 만남의 기회는 늘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에요.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학생들과 강의실에서, 강의실 밖에서 다양한 논제를 놓고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어요. 총장 재임 시절엔 강연과 대담 형식을 빌려 시대의 가치, 지구적 현안의 문명사적 함의를 놓고 재학생 여러분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세대를 뛰어넘어 대화를 나누는 일, 사회적 현안의 문명사적 함의를 함께 논의하는 일은 서로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일이지요. 대학주보가 그런 기회를 마련하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학생 구성원에게는 경희의 미래를 함께 소중히 일구어 가자는 말씀을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경희는 한국전쟁 발발 전후 출범해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한 대학이죠. 초기에는 교직원 22명, 3개 학과 입학 정원 150명, 설립 당시 떠안게 된 부채 1,500만 원이 전부였어요. 남다른 자산이 있다면, 설립 후 세운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설립 정신과 “세상 어느 곳에도 없는 명문의 길을 걷겠다”는 실천 의지였어요. 설립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분이 함께한 그 여정이 오늘의 경희를 만들었습니다.

“의지는 역경을 뚫고 힘동은 기적을 낳는다.” 경희의 역사 속에 스며 있는 그 말은 이제 도전적 미래를 일구어 가야 할 학생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미래는 항상 꿈꾸는 자의 몫입니다. “학문과 평화” “Towards Global Eminence”라는 경희의 가치가 여러분의 미래에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위기와 희망이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어요. 경희학원은 여러분 곁에서 늘 응원하고 성원할 겁니다. 새 시대, 새 희망의 중심에서 세계 될 미래세대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4 기획

동일 등록금, 다른 교육 여건... “체감되는 수업 원한다”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지난달 15일 진행된 국제캠 소통 간담회에서 생대 김영현(식품생명공학 2020) 학생회장은 생대와 공대가 같은 등록금을 내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생대 학생은 졸업 시 이학사를 받고, 공대 학생은 공학사를 받는데 등록금이 같기 때문이다. 같은 이학사를 받는 이과대의 입학비 제외 등록금은 생대와 공대보다 약 120만 원 저렴하다.

등록금은 학사 종류가 아닌 운영에 요구되는 비용에 따라 책정

우리학교와 마찬가지로 생명과학 분야 단과대가 존재하는 건국대, 고려대, 연세대는 졸업 시 취득하는 학사와 등록금 종류가 일치한다. 세 학교 모두 이학사가 나오는 학과 등록금이 공학사 학과 등록금보다 저렴하다. 이에 기획조정처는 등록금은 졸업 시 수여되는 학사가 아닌, 단과대 운영에 요구되는 비용에 기준해서 책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조정처 김도균 부처장은 “졸업 시 수여되는 학사와 등록금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학사를 받기에 이과 계열 등록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운영 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단과대에 더 많은 등록금이 책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처장은 호관대와 경영대를 예시로 언급했다. 김 부처장은 “호관대 조리&푸드디자인학과와 조리산업학과, 경영대 빅데이터응용학과는 호관대와 경영대의 다른 학과보다 등록금이 많은데, 세 학과 졸업



생대 김 회장은 “생대 등록금을 낮춰주거나 등록금에 걸맞은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대학주보 DB)

업생 모두 같은 경영학사를 받는다”고 답했다.

생대, 실험실습비 사용 학점수 적어 기초처, “예산은 다양한 곳에 쓰여”

생대 학생은 등록금이 같은 이학사를 받는 이과대보다 높은 만큼, 충분한 인프라와 체감 가능한 우수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생대 김 회장은 “생대 등록금을 낮춰주거나 등록금에 걸맞은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윤진(식품생명공학과 2024) 씨는 “실험 수업 환경이 개선되고

장학 금액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실험 수업 환경이나 강의의 수, 장학금 등 다양한 지점에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신문이 공대, 생대, 이과대 모든 학과 교육과정편성표를 비교·분석해 봤다. 그 결과, 설계·실험·실습·실기·임상 과목처럼 강의 운영비가 많이 드는 과목 학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생대가 가장 적었다.

2025학년도 교육과정편성표에 따르면, 생대 ▲스마트판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유전생명공학과 ▲융합바이오·신소재공학과 1~4학년 설계·실습·실기·임상 강

의 학점 수의 학과당 평균은 31.5학점이다. 같은 방식으로 구한 공대, 이과대 학과 당 실험·실습·실기 강의 학점의 평균은 각각 41.1학점, 37.1학점이다. 즉, 세 단과대 중 생대가 이러한 과목의 학점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에 기획조정처는 예산의 쓰임새가 다양함을 언급했다. 김 부처장은 “실험·실습 과목만이 교육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인 것은 아니다”라며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곳에 예산이 쓰인다”고 덧붙였다. 생대의 과수원, 온실 등이 그 예다. 그러면서도 김 부처장은 “학생이 등록금에 관련해 불만을 갖는 것

은 내는 만큼 돌아오는 교육 여건이 체감되지 않아서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공학사 선택트랙 개설 요청 교육과정 개편 가능성은 열려있어

김 회장은 “생대 학과 중 ‘공학’이 붙은 학과가 많다”며 “졸업 시 이학사와 공학사를 선택할 수 있는 트랙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학생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처장은 “장기적으로 학교와 학생들이 힘을 모아 고민하며, 이학사뿐만 아니라 공학사도 취득이 가능하도록 교육 과정을 개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학사를 인증하는 기관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대학이 학과별로 공학교육인증신청을 해 기준을 만족하면 해당 학과 학생들이 졸업 시 공학사를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받기 위해 학과는 ▲프로그램 교육목표 ▲프로그램 학습성과 ▲교과과정 ▲학생 ▲교수진 ▲교육환경 ▲프로그램 개선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등 총 8개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생대 행정실은 “올해 등록금이 인상되고, 전교적 차원에서 인상분 재분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예산 사용처를 정하는 과정에 있다”면서도 “학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더 나은 생대를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 생대 학생회와 행정실은 오는 19일에 간담회를 열어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SINCE 1955
대학주보 창간 70주년
늘 당신의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는 문제 해결형 학습의 시대 대학주보, 변화의 여론 선도해야”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대학주보 창간 70주년을 맞아 대학주보 발행인 김진상 총장을 만났다.

Q. 대학주보 창간 70주년입니다. 대학주보가 어떤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주보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 온 76년 경희의 역사와 궤적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세계의 창조’, ‘학과와 평화’의 추구, ‘지구적 존엄(Global Eminence)’의 실천을 지향하는 자랑스런 경희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우리학교 내부 구성원과 동문은 물론이거니와, 국내외에 경희의 자부심을 공유하고 확산시켜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학주보는 경희의 역사를 기록함과 동시에 경희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는 대학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정직하게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대학주보는 우리 경희의 학문적 발자취를 성실하게 기록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희가 때로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할 때면 올바른 시선으로 건설적인 비판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경희다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역할을 감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Q.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학언론이란 어떤 모습이며, 대학주보가 70여 년간 지켜온 가치 중 앞으로도 잃지 말아야 할 핵심 가치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학주보는 대학 언론으로서 대학 본연의 임무를 이해하고 그 핵심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대학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대학주보 역시 대학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식을 정확하게 보도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주보가 대학 사회 안팎에서 수행되는 교육과 연구 및 각종 실천 활동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기를 바랍니다. 대학주보는 대학 사회의 현실에 대한 단순한 기록을 넘어 공동체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심층적인 기사를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대학의 창학 정신과 전통을 중요한 가치로 계승



김 총장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지향적 교육이 마련되고 있는지 등을 항상 주시해 주면 좋겠다”는 당부를 전했다. (사진=박서연 기자)

하고 발전시키는 메신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Q. 시대별로 대학 언론 역할도 달라져 왔습니다. 고등교육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 대학주보가 언론으로서 지녀야 할 가장 핵심적인 사명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대학 언론은 대학 고유의 학문적인 사명은 물론이거니와 동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교육체계, 교과과정, 교육방법, 교육환경, 교육역량, 교육평가 등을 새롭게 개혁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대학의 교육은 이제 단순히 지식을 주고받는 수동적 학습의 방식에서 벗어나 ‘생각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think)’과 ‘문제해결을 위한 학습(Learning to problem solving)’을 지향해야 합니다. 대학주보가 학생 인생을 바꾸는 ‘교육’과 인류의 삶을 바꾸려는 ‘연구’, 직접 참여 활동을 보장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주목하면서 ‘대학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여론 형성’을 가장 핵심적인 사명으로 설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선적인 사실의 나열보다 심층 취재와 탐사 기획을 거치면서 대학 구성원의 깊은 공감과 반향을 형성하는 공정한 보도로서의 기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총장님께서 현재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한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학주보와의 우리학교 교육의 방향성과 관련한 공동 기획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5월 20일 교육에 대한 비전 선포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에 있어선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후에 공동 기획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 선택과 커리큘럼을 안내해 주는 것을 플랫폼화, 즉 데이터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 집중적으로 실행에 옮길 예정입니다.

다전공 의무화 역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원칙이 복수 전공 선택이고 원칙 않을 경우를 대비해 심화 전공을 선택하게 설계할 것입니다. 결국 생각하는 능력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서 나오기에 사람과 사회에 대한, 그리고 인문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우리학교만의 특성화된 연구를 확대하고 싶습니다. 학과별로, 혹은 분야별로 특성화된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공동 기획을 한다면, 우리학교가 세부적으로 특성화돼서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같이 선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초기 기획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Q. 총장님께서 기억하고 있던 대학주보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합니다.

1980년대 초중반에 학부와 대학원을 다녔는데, 개인용 컴퓨터가 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대중매체로는 흑백 텔레비전과 일간지 신문밖에 접할 수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거나 종이로 인쇄된 종합 일간지를 보아야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알 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주보는 학내에서 학교의 정보를 습득하고 대학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언론 매체였습니다. 다른 학교 친구에게 대학주보를 우편으로 보내주고, 그 친구들이 보내주는 대학신문을 받아보면서 다른 학교 소식을 접하는 방식이 당시 대학 사회의 소통 문화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대학주보는 새로운 뉴스를 접하기 위해 꼭 읽어야 하고, 타인에게 소식을 전달하는 매체로서 저의 대학 생활을 돕는 ‘또 하나의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Q. 당시 대학 언론이 학내에서 가지던 분위기나 영향력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당시에는 대학주보가 대학 사회의 현실을 파악하게 하는 거의 유일한 활자 매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학주보가 아니라도 재학생이 이용하는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해서 대부분의 소식을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1주일에 1번씩 매주 발행되었습니다. 신문 면수도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되고 발행 부수도 지금보다 월등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980~90년대에는 대학주보가 대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식을 알리고 구성원과 함께 소통하는 유일한

매체가 활자화된 신문 매체로서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어떤 때는 대학언론이 학교에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장님께서 대학언론의 비판과 균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학 언론은 대학 본연의 임무를 가지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대학이 본질적 임무 수행의 궤도를 벗어날 때 날카로운 비판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소한 실수를 바로잡는 작은 비판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대학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법한 대안을 제시하는 건설적인 비판도 수행해야 합니다. 저는 대학 언론이 대학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모와 상관없는 비판 속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혜안이 바로 비판과 균형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Q. 총장님께서 대학주보의 발행인이십니다. 발행인으로서 생각하시는 좋은 대학언론은 무엇인지, 대학언론이 놓지 말아야 할 핵심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학의 주요 임무인 교육, 연구, 실천 활동을 끊임없이 감시하면서 사학기관인 경희대의 창학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비판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을 따라가는 연구와 교육이 아니라 경희대의 전통과 유산을 계승하고, 고유한 철학과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는 학술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항상 주시하면서,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발생할 때 날카로운 안목으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생의 미래 진로를 위해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교육,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해 시대 정신을 반영한 교육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지향적 교육이 마련되고 있는지 등을 항상 주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 세계 우수한 언론 매체처럼, 신뢰받는 대학 언론의 기수가 되어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관한 비전을 세우며, 심층적인 분석과 전문가의 타견, 취재기자의 기획 기사 등의 비중을 높여 대학주보가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대학 언론을 선도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6 창간 70주년 특집 - 나는 주간교수다 ⑤

언론학 교수처럼 “기계적 중립, 그건 최소한” 선배기자처럼 “열정 없으면 기자하지 마라”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한균태(신문방송학)
2000.01~2002.02 주간

창간 70주년을 맞아 대학주보는 역대 주간 교수를 만나 그들이 겪은 대학과 사회의 현실, 덜 다듬어진 학생기자들을 어루만져온 그 시간을 돌아보았다. 다섯 번째 순서는 역대 주간 중 유일하게 주간교수와 발행인(총장)을 역임했던 한균태 전 주간의 이야기다.

해직 기자 출신 주간
‘기계적 중립’ 강조하기도

1970년대 말, 한균태(신문방송학) 교수는 신문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자유 언론을 외치며 목소리를 낸 대가는 가혹했다. 입사 2년 만에 ‘해직기자’ 신분으로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신문방송국 주간교수를 맡아달라는 제안에 “다소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한 교수는 가슴 한 켠 깊숙이 묻어두었던 해직기자로서의 아픔과 언론학자로서의 기대감이 동시에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현장에 다시 돌아와 이론적 지식을 접목시켜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때로는 언론학 교수처럼, 또 때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선배기자처럼 한 교수는 대학주보 기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편집실에서는 아이디어 회의를 독려하며 편집장과 수시로 소통했고, 조판 후 술자리에 항상 참석하는 보기 드문 주간이었다. 동시에 언론학자로서 기사에 담겨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형식을 중시했다.

한 교수는 “기사를 쓸 때 ‘정성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학생 기자들이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신 ‘기계적 중립’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학교와 학생 측의 입장을 가급적 균형 있게 담도록 지도했고, 기사에서 감정을 암시하는 형용사는 최대한 덜어내도록 했다.

해직되기 전 3개월은 교열부에 있었던 탓에 그 습관이 대학주보 조판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다. 한 교수는 빨간펜을 들고 기사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사실 관계와 논조를 끝까지 따졌다. 48기 강금영(사회과학부 1999)은 “워낙 꼼꼼하셨던 탓에 조판소에서도 취재수첩



한 교수는 편집실에서는 아이디어 회의를 독려하며 편집장과 수시로 소통했고, 조판 후 술자리에 항상 참석하는 보기 드문 주간이었다.

(사진=이지수 기자)

을 뒤적이며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곤 했었다”며 “제 2000년에 꼭 필요한 ‘미워할 수 없는 악역’같은 분”이라고 전했다. 49기 김수성(간호학 2000)은 “스물몇 살 즈음의 청춘이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당연히 있었고, 타협하지 못하고 싸우면서 속상했던 감정이 슬그머니 피어오를 때도 있었다”며 “줄다리기가 많았지만, 결국 열에 일고여덟은 못이기는 척 신문을 허락하셨다”고 떠올렸다.

날 것의 반응
기대했던 ‘현장의 감각’

특하면 협조전을 내미는 기자들에게 “수업과 병행할 수 있는 의지나 열정이 없으면 기자하지 마라”고 호통치곤 했지만, 47기 이승재(서양어학부 1998)의 기억처럼 한 교수는 “학생 기자들이 고생하는 점을 인정하며 학교 측의 많은 지원을 이끌어낸 주간”이었다. 당시 편집장이던 47기 김주애(지리학 1998)가 총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IMF 여파로 끊긴 해외 연수를 다시 추진해 달라”고 과감히 건의하

자, 옆에 있던 한 교수가 “방학도 없이 취재하는 학생 기자들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강력히 힘을 보탰다. 그 한마디는 여름방학 일본 탐방을 시작으로, 이듬해 중국 기행과 실크로드 탐방 등 수많은 해외 취재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 학생기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담아온 생생한 취재 내용은 르포 형식으로 지면에 실렸고, 대학주보는 한층 넓어진 시야로 독자들과 만날 수 있었다.

한 교수는 “그 당시에도 학생운동은 있었다”며 주간 시절 또렷이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를 소개하기도 했다. 지금은 사실을 편집장이 도맡지만, 당시에는 주간과 편집장이 번갈아가며 사실을 쓰던 때였다. 어느 날 한 교수가 ‘명분 없는 학생 시위’를 주제로 비판적인 사실을 썼는데 그게 기폭제가 됐다. 며칠 뒤 정경대 앞에는 “조선일보와 같은 대학주보, 죽창을 들고 무찌르자!”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었다. 정경대 학생회장이자 신문방송학과 학생이 직접 불인 것이었다. 섬뜩하기도 우스꽝스럽기도 한 저 문장은 당시에도 꽤나 격양된 표현이었다. 자신

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았지만 한 교수는 날 것의 반응조차 대학주보가 여전히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여겼다. 주간직을 제안받으며 기대했던 ‘현장의 감각’이었다.

총장이 된 주간교수
위치가 바뀐 시각

시간이 흘러 2019년 12월, 한균태 교수는 경희대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구성원들의 직접 추천을 통해 선출된 총장이 됐다.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이제는 ‘발행인’의 입장으로 대학주보 지면을 읽게 됐다. 역대 주간교수 중 두 역할을 모두 경험한 이는 한균태 전 주간뿐이다. 이에 대해 “대학을 운영하는 총장의 시각과 학보를 이끄는 주간 교수의 시각은 확실히 달랐다”는 짧지만 깊은 소회를 남겼다.

주간 교수 시절에는 학교와 학생 사이에서 일종의 ‘줄타기’를 해야 했다. 기자들의 질문은 뾰족했고, 학교는 종종 불편해했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조율하는 일이 주간 교수의 몫이었다. 반면, 대외적으로 대

학을 알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는 총장의 자리에서는 자연스레 ‘좋은 뉴스’에 더 많이 눈이 갔다. 하루는 <대학주보의 가치는 폄하될 수 없다>는 제목으로 대학 본부를 비판하는 사실이 지면에 실렸다. 한 교수가 주간교수와 편집장을 따로 불러 말했다. “‘폼하될 수 없다’보다는 ‘가치는 존중돼야 한다’는 표현이면 어떨을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입장에 선 목소리였다. 한편에선 본부 직원들에게 “학생 기자들에게 정보를 숨기려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제공할 수 있는 내용들은 공유하라”고 당부하며 대학주보 가치를 존중하고자 했다.

해직 기자에서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대학주보 주간을 거쳐 총장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굽이진 길을 돌아본 한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걸어온 길을 성찰하는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학생기자들에게는 “이번 주엔 어떤 취재를 했는지, 기자로서 최선을 다했는지, 관련 인물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다음엔 더 나은 방식으로 써보자는 다짐도 필요하다”는 조언을 건넸다.

3인 편집장 생존기, “그 시절 우리는 버텨야 했다”

사회에서도 ‘어떻게든 해내는 사람’ 돼 있어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57기 박설희(법학 2008)

58기 권오은(언론정보학 2009)

59기 국주연(언론정보학 2010)

대학주보가 가장 어렵던 시절, 고군분투하며 위기를 넘긴 세 명의 편집장이 있었다. 박설희(57기), 권오은(58기), 국주연(59기)이 그 주인공이다. 뉴욕타임즈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졌다지만, 뼈뚫힌 인원으로 자타 공인 대학주보의 전성기를 이끌어냈다. ‘전통적인 대학주보 기자상’으로 불리는 마지막 세대였던 이들을 회기동으로 다시 소환했다. 지난 4월 30일, 한자리에 모인 세 사람은 그 시절을 꺼내 웃고 떠들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시절처럼 마음이 단단해졌다.

유례없는 위기에 봉착하다

2009년 9월, 막 편집장으로 부임한 57기 박설희(법학 2008)에게 유례없는 위기 상황이 닥쳤다. 동기 22명이 죄다 나간 탓이었다. 박설희는 정기자였던 58기 권오은(언론정보학 2009)과 김채원(골프경영학 2009) 단둘을 데리고 이제 대학주보를 책임져야 했다. 신문을 내기에는 뼈뚫힌 숫자였다. 원래라면 팀장이든 선배든 누군가가 한 번쯤은 기사를 다듬고 넘겼을 테지만, 그럴 여유조차 없었다.

입기를 끝낸 OB 선배였던 김보라(대학주보 56기)가 ‘날 것’ 상태의 권오은의 글을 교정하다 분노를 참지 못할 정도였다. 권오은은 “새벽이었는데 누나가 ‘편집장 같 테니까 너 목 닦고 기다려’ 그랬어요. 근데 후문 평화의전당 언덕을 넘어오면서 화가 좀 풀렸더라고요”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박설희가 1만 자를 쓰면, 권오은은 8천 자쯤 썼다. 한 사람당 지면 3~4개를 책임진 셈이다. 아이템은 늘 부족했고, 회의 중엔 “우리가 불을 지를까?”, “아니, 고성방가라도 질러보자”는 농담들이 오갔다. 일요일만큼은 쉬자 싶었지만, 그날조차 ‘네이트온’ 회의가 열렸다. 이유는 하나였다. “내일 말도 안 되는 아이템 가져올까 봐 미리 검열하려고.”

가차 없는 박설희가 가장 두려웠던 건, 권오은과 김채원이 대학주보를 그만두는 일이었다. 남은 세 명



세대불문 누구와도 잘 지내는 사회성, 논리가 바탕이 된 기획력, 상황 판단 능력, 그리고 무한한 회의 체력이야말로 이들이 가진 진짜 무기였다. 왼쪽부터 58기 권오은, 57기 박설희, 59기 국주연. (사진=이지수 기자)

중 누구 하나라도 빠진다면, 더 이상 신문을 낼 수 없을 것이 뻔했다. “집에 가서 언니랑 먹어”, “집에 가서 동생이랑 부모님이랑 먹어.” 박설희가 수시로 손에 쥐여 보낸 도넛 한 박스는 ‘너를 걱정하고 있으니 이곳에 남아달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위태로운 대학주보를 떠받치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한 절실한 마음의 표현이었다. 권오은은 “우리의 어려움을 받아주고 이리진 않았지만 정이 많았다”며, “다정했지만 또 ‘다감’하지는 않았던 편집장 박설희를 떠올렸다.

뉴욕타임즈 쫓다 가랑이 찢어져

고된 한 학기를 버텨낸 뒤 59기 수습기자들이 들어왔고, 그중 한 명이 국주연(언론정보학 2010)이었다. 숨 좀 돌리려는 찰나, 또 다른 위기가 닥쳤다. 신문방송국 행정실 김종현(대학주보 36기)이 <뉴욕타임스 혁신 보고서>를 읽은 것이 발단이 되었다. ‘채널 다변화’와 ‘맞춤형 콘텐츠’, 김종현은 “이게 우리가 갈 길이다”를 외쳤고, 권오은은 “거기서부터 망한 거였다”고 회상했다.

당시 현역 기자단이 편집장을 중심으로 매주 발행되는 신문 제작에 매달리고 있었다면, 행정실의 편집간사와 조교들, 즉 대학주보 OB들은 그 외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

었다.

조교였던 김세익(대학주보 51기)은 “뉴욕타임스나 가디언을 참고해서 현역 기자단과 인사이트를 나누려 했던 시기였다”며 “워크숍이나 세미나마다 자료 문치를 통째로 던져주곤 했다”고 말했다. 김종현과 편집장 권오은 사이에서 OB들 역시 기자 못지않게 ‘혹사’ 당했던 시절. 그 속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물건이 있으니, 바로 간사 김주애(대학주보 47기)의 ‘검정 노트’다. 모든 게 담겨 있던 그 노트는 일종의 비밀병기이자 공포의 상징이었다. 김세익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온갖 게 다 들어 있으니까 호시탐탐 불태울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모바일로 저널리즘이 옮겨간다는 게 도대체 어떤 형태인지 아무런 롤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도 권오은은 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어처구니없는 시스템을 성실하게 잘 굴렸다. 매주 신문은 멀쩡히 만들면서도, 온라인 전용 기사를 매일 마감했다.

카드 뉴스를 만들었고 페이스북 중심으로 SNS를 관리했다. 동시에 분기별 매거진까지 푹푹푹푹 만들어냈다. 고생 끝에 반응은 따라왔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연간 트래픽은 120만을 찍었다. 김세익은 “대학주보가 SNS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도 따로 운영하고 지면도 내고 동

시에 매거진도 냈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는 활발하게 여러 매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고 전했다.

시아머니 셋에 시누이 일곱

박설희에서 권오은으로, 그리고 국주연으로. 편집장 바통은 그렇게 이어졌다. 이전보다 기자 수도 늘었고, 전임 편집장들에게 수련받은 기자들을 데리고 탄탄하게 조직을 운영하기만 하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국주연의 시절은 또 다른 종류의 고단함이었다. 전임 편집장 둘은 여전히 재학 OB로 남아 대학주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2층 행정실에도 조교나 간사로 일하는 OB들이 남아있었다. 든든했지만 부담스러웠다. 뚜렷한 족적을 남긴 영웅들의 다음 타자가 된다는 것, 그 무게는 컸다. 김세익은 “그 시기 2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대학주보의 영향력이 약화된다거나 비리비리해지는 이런 것들을 눈 뜨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며 “주연이가 나름대로 편집장으로서 만들어가고 싶은 비전이나 청사진이 있었을 텐데 여러 관계 설정에서 힘들었을 것이다”고 회상했다.

레이아웃을 그리고 있던 어느 날, 문이 벌컥 열리더니 권오은이 들어왔다. “야, 너는 레이아웃 맨날 이렇

게밖에 못 그려?” 마침내 국주연이 터지고 말았다. “보고 배운 게 이거라서 그래요!” 그 말은 행정실까지 달았고, “이렇게나 널 도와주는 선배한테 그럴 수 있냐”는 꾸중이 돌아왔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주연이 서럽게 눈물을 쏟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레이아웃은 원래 권오은이 만든 방식이었다. 권오은은 국주연에게 새로운 방식의 변화를 기대했고, 무엇보다 국주연이라면 충분히 해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국주연은 해냈다. 권오은보다 더 유연했고, 박설희보다 더 따듯했다. 전임자들이 씨를 뿌리고 물을 준 그 밭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꽃을 피워냈다. 김세익은 “주연이는 정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증명을 하면서 나아간 편집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설희는 “주연이는 진짜 애썼다”며 “시아머니가 세 분이고 시누이가 일곱 명 있는 집에 시집간 기분이었을 거다”며 국주연의 지난날을 대변했다.

대학주보에서 배운 ‘버티는 법’

이들은 대학주보에서 ‘버티는 법’을 배웠다. 상황이 아무리 엉망이어도 신문은 나와야 했기에, 마감은 지켜져야 했다. 그렇게 매주 살아남다 보니, 사회에서도 ‘어떻게든 해내는 사람’이 돼있었다. 글쓰기나 편집 기술은 부차적이었다. 세대불문 누구와도 잘 지내는 사회성, 논리가 바탕이 된 기획력, 상황 판단 능력, 그리고 무한한 회의 체력이야말로 이들이 가진 진짜 무기였다. 박설희는 “주제를 주제답게 다루는 훈련을 3년간 했으니 회사 가면 기획안 제일 잘 쓰는 사람 되는 거다”라며 웃음을 보였다.

말 그대로 박설희는 졸업 후 교육 시장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고 권오은은 기자로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눈물 한 바가지 흘린 국주연은 선배들의 ‘가혹한 작업지시’가 못내 부당했었던지 노무사로 기업 인사담당자가 됐다. 다정하지만 다감하지 않았던 묘한 설희, 미운데 밟지 않은 스파르타 오은, 그리고 그 둘을 보며 자기만의 단단함을 길러낸 주연. 세 사람의 손끝에서 대학주보는 위기마다 살아났다. 힘들었지만 끝내 버텨낸 그 시간들이, 여전히 이들을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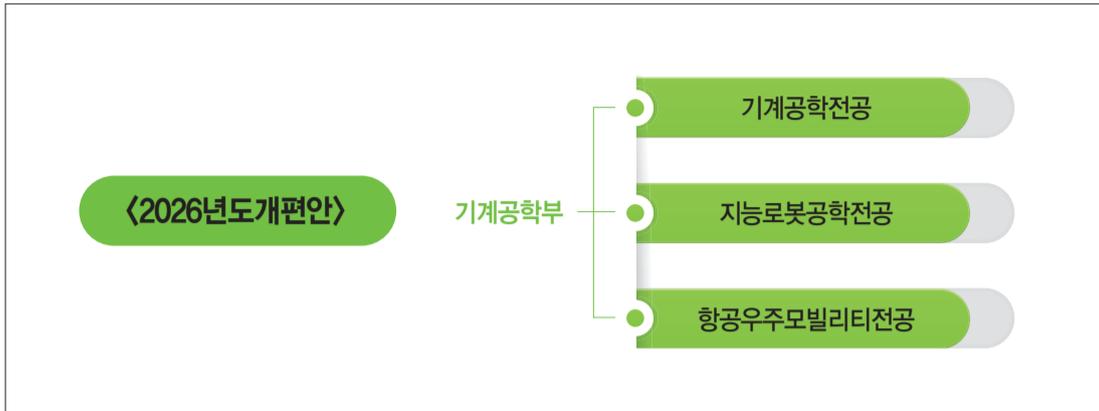
8 종합

기계공학과 학부 체제로 변경, 3개 세부전공 신설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국제】 내년부터 공대 기계공학과가 학부 체제로 전환된다. 기계공학부 산하엔 ▲기계공학전공 ▲지능로봇공학전공 ▲항공우주모빌리티 세부 전공이 신설된다.

이번 개편은 특화 전공을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를 충족하고, 깊이 있는 교육과정 설계를 위해 이뤄졌다. 기계공학과 이병찬(기계공학) 학과장은 “국가와 학교 차원에서 특화 전공을 권장하는 상황에서 첨단 전공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기계공학부 교육과정 개편 논의 및 시행은 작년부턴 이뤄졌다. 신설되는 세부 전공 중 기계공학



전공은 기존 기계공학과 전공 과정을 대체로 따른다. 지능로봇공학전공에서는 로봇 기술과 더불어 주요 AI 기술을 습득한다. 항공우주모빌리티전공에선 극한 재료와 신소재

와 같은 극한의 환경 속 기기의 특성과 항공우주 보안 등을 다룬다. 학제 개편에 맞춰 전공과목 체계도 개편된다. 과목명 변경, 과목 신설, 과목 세분화가 이뤄진다. 예컨대

‘실험통계학’ 수업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교육 내용을 포함해 ‘지능로봇공학전공’ 수업으로 세분된다. 신입 교원 확보 역시 함께 이뤄진다. 이 학과장은 “2028년까지 매년

3~4명 신입 교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올해 4명의 교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교원 확보가 어려운 과목의 경우엔 타 단과대 교수진이 임시로 참여할 수 있다.

기계공학과는 개편에 맞춰 학생 진로 탐색과 교내 적응을 도울 방안도 마련 중이다. 내년 신입생은 같은 교육과정을 따랐던 선배가 없기 때문이다. 이 학과장은 “교수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적응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계공학과는 이 같은 세부 전공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다. 이 학과장은 “기계공학과에는 첨단성을 지닌 분야가 많다”며 “학교 여러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세부 전공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학년도 후기 대학원생 모집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과정 신(편)입생 모집안내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EDIA & COMMUNICATION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 교부 및 접수	2025.04.28.(월) ~05.20.(화) 17:00	본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행정실 606호 교부
면접일	2025.05.31.(토) 10:00 예정	* 온·오프라인 병행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합격자 발표	2025.06.04.(수) 15:00 예정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 http://communication.khu.ac.kr

모집 전공 및 인원

학과	전공	모집인원
저널리즘	신문·잡지	00명
	방송	
	광고	
전략커뮤니케이션	홍보	
	스피치·토론	
	정치커뮤니케이션	
	출판·저작권	
문화콘텐츠	대중예술	
	디지털영상	
디지털미디어플랫폼	디지털미디어플랫폼산업	

지원 문의

홈페이지 <http://communication.khu.ac.kr>
 Tel. 02)961-0560~1
 E-mail. khsb2520@khu.ac.kr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26 청운관 606호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행정실
 팩스 02)961-9581

경희대학교 총동문화 가입
동문 네트워크 활성화

학·목요일 야간수업
계절학기 수강시 최대 1년 이내
수업연한 단축 가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미디어의 미래를 열어가는 전문교육기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전문가 트랙
 디지털 커머스 & 쇼호스팅 전문가 트랙
 AI &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트랙
 K-Culture & 엔터테인먼트 전문가 트랙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트랙
 메타버스 전문가 트랙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가능
다양한 장학금 혜택

대외협력처 개편 양캠 기구 통합 발전기금팀 개설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대외협력처 조직 체계가 개편돼 양캠 기구가 통합되고 발전기금팀이 신설됐다.

대외협력처는 이번 개편으로 기존 두 개 부서(서울·국제)에서 하나의 부서로 통합됐다. 산하에는 신설된 발전기금팀과 대외협력팀을 둔다. 대외협력처는 우리학교 국내외 교류 협력과 발전기금 조성을 총괄하는 부서다.

이 같은 개편은 작년 총장 취임 이후 새로운 대학 비전과 중점과제를 설정하며 추진됐다. 기획조정처 전략기획팀은 “기부금 확대와 대외협력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도출에 적합한 대학 행정 체계를 구축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캠퍼스별로 상이한 업무와 문화를 통합해, ‘원바디’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캠퍼스를 구분하지 않는 이번 개편을 통해 조직 관리체계가 단순화된다. 전략기획팀은 “경제적 효율성 향상, 캠퍼스 간 협업과 시너지 효과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같은 대학이면서도 다르게 운영되던 정책도 통일돼 시행함으로써 업무의 전문화, 서비스 품질 향상 또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발전기금팀이 신설된 점도 이번 개편의 특징이다. 발전기금팀은 ▲발전기금 조성계획 수립·집행 ▲잠재 기부자 프로파일링 및 DB 구축 ▲발전기금 기부자 발굴 및 예우 ▲기금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행사 기획·집행 ▲발전기금관리위원회 운영 ▲수중물품 보고 ▲성금 캠페인 통합 홍보 계획 수립·진행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발전기금팀에는 발전기금과 관련한 전문계약직을 채용해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략기획팀은 “2023년 약 800억을 모금했던 고려대는 모금전문가 컨설턴트 7명을 포함해 본·분교 캠퍼스 합산 전체 31명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타 대학 사례를 참고해 2025년 기금모금 목표인 150억을 달성하기 위해 기부금 수입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 이후에도 대외협력처 사무실은 캠퍼스별로 운영되며, 유선번호도 서울, 국제 구분돼 운영된다. 현재 양캠 공동 체제로 운영되는 부서는 대부분 캠퍼스별로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다.

기획조정처는 “기능별 담당자 체계로 하거나, 캠퍼스별 담당자를 배치하는 등 업무 분장은 부서별 또는 팀별로 상황에 맞게 운영된다”고 말했다.



27학년도 입시부터 출결 기준 강화 반영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지난달 29일 우리학교 2027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이 발표됐다. 주요 변동 사항은 인재상 변경, 출결 사항 반영 방법 변경이다.

학생부 비교과 중, 출결 반영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3년간 총 미인정 '수업 일수'만 반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결석 일수 뿐만 아니라 지각·조퇴·결과까지 반영한다. 미인정 지각·조퇴·결과 2회당 미인정 결석 1일로 간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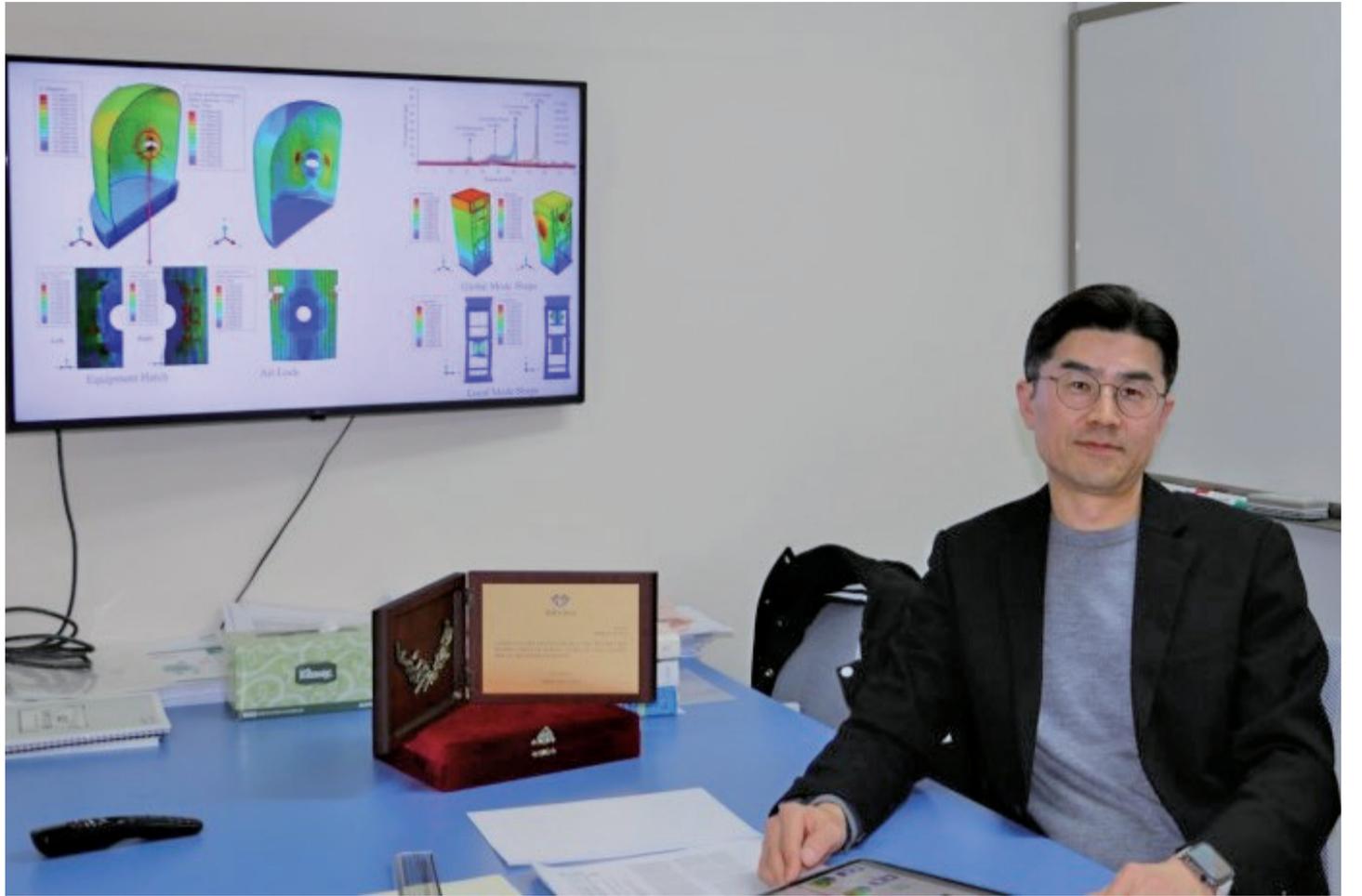
입학처는 "코로나 시절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며 지원자 출결 사항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현재까지도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조성이 되고 있다"면서 "출결은 학교생활의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정상화를 위해 출결 사항 반영 기준을 상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모집 학생 인재상도 변경됐다. 기존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에서 '성찰하는 지성인', '창조하는 미래인', '공존하는 세계인'으로 바뀌었다. 이는 2027학년도 입학 전형부터 적용된다.

입학전형팀 임진택 팀장은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인재상을 정립하고자 했다"며 "2020년에 입학처 내 인재상 수립 TF를 구성해 1년간 연구를 진행해 새로운 인재상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2024년 신입 총장 취임 시기에 맞춰 구체화 작업을 거쳤다.

이어 작년 하반기부터 내부 논의를 거쳐 대입전형관리위원회 심의와 교무위원회 발표, 총장 보고 절차를 진행했다. 이를 거쳐 지난 3월 말 최종 인재상 개편안을 확정했다.

입학처는 새로운 인재상에 "AI 시대 환경과 학생 눈높이에 맞춰 인재상을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라면서도 "인재상이 실질적으로 평가 요소로 작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지원자들이 그런 부분을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대학의 평가 요소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주 교수는 "코로나 이후로 학생들과의 교류가 이전보다 현저히 줄었음을 체감한다"며 "먼저 학생들과 소통하고 다가가려는 교수가 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원희재 기자)

“학생 능력은 현장에서 자란다” 이론 넘어 경험의 중요성 강조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2024 경희 Fellow 우수 교육 - ②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주부석 교수

경희는 교육·연구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교원을 '경희 Fellow'로 선정한다. 우리신문은 2024 Fellow 교수 중 학생과 밀접한 '교육' 우수 부문 교원 3명 중 2명(변경민, 주부석 교수)을 만나본다. 두 번째 순서로 주부석(사회기반시스템공학) 교수를 만나기 위해 공과대학관을 찾았다.

주 교수는 많은 사람에게 '토목'이라고 더 잘 알려진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교수로, 2019년부터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해 왔다. 그가 중시하는 교육적 철학이 바로 '현장'이기 때문이다.

주 교수는 "결국 학생의 능력은 현장에서 나온다"며 이론 공부를 넘어 현장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전공을 드나드는 것을 넘어, 주 교수가 직접 기획한 현장실습을

통해 매년 20명 내외의 학생이 방학 동안 설계, 시공회사에서 실습을 진행하고 현장을 견학한다.

주 교수는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지인과 적극적으로 연락해 학생에게 더 좋은 실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며 "학생이 적성에 맞는 분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 매년 확대하려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장 중심'을 강조하는 교육 철학은 그가 공학도인 제자들에게 세계로 뻗도록 이끌기도 했다. 주 교수는 "해외 건설 시장으로 국내 엔지니어의 진출이 활발하다"면서도 "외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2019년부터 글로벌 엔지니어 육성을 위해 외국어대학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간 융합 전공 트랙이 개설된 것도 주 교수의 주도로 이뤄졌다.

학생을 위한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주 교수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외 교수 초청 세미나도 진행한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온 교수들이 매년 우리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 주 교수는 "해외 대학과 기관들은 국내와 비교했을 때 기초학문 연구가 높은 수준이라 학생들이 배울 점이 많다"고 했다.

해외 진출과 융합 전공을 중시하는 교육 철학에는 주 교수의 유학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 주 교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다. 연구생 시절엔 토목공학·컴퓨터공학·원자력공학을 융합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

주 교수는 "유학 가기 전부터 토목공학을 다른 분야와 함께 공부하고 싶었다"며 "마침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 융합 학문을 특성화한 규모가 큰 연구센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주 교수는 수업과 별개로 학생들과 더 가까워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주 교수는 "코로나 이후로 학생들과의 교류가 이전보다 현저히 줄었음을 체감한다"며 "먼저 학생들과 소통하고 다가가려는 교수가 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현장중심’을 강조하는 교육 철학은 그가 공학도인 제자들에게 세계로 뻗도록 이끌기도 했다.**

”

683개 실험실, 안전은 관찮습니까 제도 촘촘해졌지만 실천은 교수 몫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지난달 8일, 한양대 한 실험실에서 황산 누출로 화학 화상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학교 연구실과 실험실 안전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봤다.

연구실 안전 담당 교수가 도맡아 안전팀은 조연자 역할

대학 및 연구기관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안법) 제9조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해 연구실 안전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안법 제10조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에 따라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국제캠 안전팀 최지우 전담 선임은 “실질적 실험실 안전관리는 각 연구실별 책임자 또는 담당자 역할이고, 안전팀은 연구실 책임자랑 안전관리 담당자에 조언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캠엔 작년 12월 기준, 총 6,089명 연구활동종사자가 있다. 안전 관리자는 3명으로, 각각 연구실 전담, 설비 전담, 소방 및 폐처리를 전담한다. 연구실은 5월 12일을 기준, 고위험 242개소, 중위험 38개소, 저위험 127개소로 총 407개소가 있다. 위험 등급은 가스 생물체, 납처럼 위험 물질을 사용하면 고위험, 기계 설비만 사용하면 중위험, 컴퓨터만 사용하면 저위험으로 분류된다.

서울캠 연구활동종사자는 총 4,761명으로 현재 안전 관리자는 국제캠과 마찬가지로 3명이다. 연구실은 고위험 216개소, 중위험 46개소, 저위험 14개소 총 276개소가 있다.

국제, 연구실 환경 중점 확인 서울, 안전점검 평가제

국제캠 안전팀은 최소 한 달에 한번 이상 연구실 현장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국제캠 안전팀은 “400곳이 넘는 연구실을 한 번에 다 둘러보기는 어려워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 한 번 갈 때마다 최소 20곳 정도 둘러본다”고 말했다.

현장 점검에선 전반적인 연구실



국제캠 안전팀은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안전 점검을, 서울캠은 연구실 안전 점검 평가제를 통해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사진=대학주보 DB)

환경을 확인하고, 안전팀에서 지적한 문제가 개선된 결과를 사진으로 보고받는다. 국제캠 안전팀은 “주로 연구실 환경과 공기 질, 가스 사용, 시약 관리, 환기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내부 기자재, 집기 정리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캠은 연구실 안전 점검 평가제를 실시하며, 안전팀에서 연구실별 매 학기 2회 이상, 연간 총 4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안전 점검 평가제는 안전팀 주관 하에 교내 모든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는 서울캠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안전 점검 평가제에 국제캠 안전팀은 “아직까지는 해당 제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환경이 우수한 연구실에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 점검에서는 개인보호구 적정 수량 보유·비치 및 관리 여부, 폐액용기 성질 및 상태별 분류, 안전 라벨 부착·표시 여부 등을 포함한 40가지 항목을 확인한다. 서울캠 안전팀은 “안전 점검은 연구실에 안전담당자 또는 연구 활동 종사자가 있을 때 합동 점검으로 진행하며, 문제점과 개선 방법을 직접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실이 부재

일 때는 안전팀 점검 후 단과대 행정실로 결과 자료를 전달해 개선 조치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 캠은 과기부에 안전 점검 대행 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 연간 1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해당 진단으로 실험실 안전 등급을 산출한다. 정밀안전진단 이후에는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에 연구실별 문제점을 등록하고, 결과를 공유해 문제 개선 조치를 요청한다.

안전교육 이수율 상승세 사고건수도 감소

우리학교 안전교육 대상자 교육 이수율은 높아지는 추세다. 우리학교는 연안법 제20조,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연구실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정기 안전교육 대상자를 기준으로 우리학교 실험실습실 정기 안전교육 이수율은 상반기 ▲41.74%(2021) ▲61.27%(2022) ▲67.44%(2023)를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50.88%(2021) ▲68.4%(2022) ▲69.64%(2023)를 기록하며 3년간 70%를 넘지 못했으나 2024년 총 연구활동종사자 기준 우리학교 정기 안전교육 이수율은 상반기 79.42%, 하반기 86.18%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사고건수 역시 ▲19건(2021) ▲7건(2022) ▲6건(2023) ▲5건(2024)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국제캠 안전팀은 “자체적으로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각 단과대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협조를 잘 해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이수율이 낮아지면 여러 부서와 협의로, 대학원생 안전교육 미이수 시, 연구실 출입을 불허하는 등의 페널티 또한 고려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관리 세부 시스템 각 담당 교수 재량 따라 상이

다만, 안전팀의 안전 점검이 주기적으로 있더라도, 실질적 연구실 관리는 연구실 담당 교수 역할이다.

이승현(전자공학) 교수는 “폐시약통은 실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3주 간격으로 교체한다”며 “실험 후에는 실험자가 곧바로 정리 및 청소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장비와 기기는 퇴근 전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뒤 전원을 차단한다”고 관리 방식을 설명했다.

윤성민(신소재공학) 교수는 “실험실 일일점검 항목에 근거해 매일 점검하고, 실험실 내 모든 기기 및 장비에 주 담당자와 부담당자를 지정했다”며 “담당자 중심으로 수시

로 유지보수 및 청정 관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또한 “장비 이외의 안전관리 역시 해당 업무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실질적 차원에서 개선 주장하기도

이 교수는 “우리학교의 안전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안전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관리팀에서도 정기적인 실험실 점검과 평가로 개선을 유도하는 체계”라는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 교수는 “현재도 ‘실험실 연구환경 개선 사업’이 연 1회 수요가 있는 연구실 신청을 받아 진행되고 있지만, 신청부터 선정과 지원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재형(화학공학) 교수는 “연안법에 따르면 실험실에는 화재, 폭발 등 사고가 일어났을 때 원활히 대피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2개의 비상 대피 경로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대다수 연구실은 출입구가 1개다”라며 “만약 출입구에서 폭발이 발생한다면, 안에 있는 학생은 대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중앙도서관, 외부음식 반입금지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서울】 중앙도서관이 끊이지 않는 쓰레기 문제로 휴게 공간 내 외부음식 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

지난달 중간고사 기간부터 서울캠 중앙도서관에는 ‘외부음식 반입 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안내문에는 ‘휴게실 내에서 배달 음식 및 도시락 등 외부 음식물 취식으로 쓰레기 처리 및 좌석 부족 문제 지속적 발생 때문’이라고 적혀있다. ‘위반 시 휴게실 이용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성 협조 요청도 있었다.

서울캠 중앙도서관에서 취식이 가능한 곳은 2층 매점 옆 휴게 공간이 유일하다. 이곳에 외부음식 반입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중앙도서관 측은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중앙도서관 김지영 차장은 “코로나19 이후 대면 강의로 전환된 때부터 포장 음식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지난 시험 기간부터는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것까지 늘었다”며 “매점 판매 제품이 아닌 외부 쓰레기가 늘어나면서 매점을 운영 중인 생협에서 반입금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생협은 쓰레기 관리로 고충을 겪어 왔다. 생협 정광수 판매사업팀장



서울캠 중앙도서관 2층 휴게실에 붙은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문 (사진=이환희 기자)

은 “시험 기간 매점 직원이 쓰레기를 정리한 지 불과 몇 시간 뒤 외부음식 쓰레기가 넘쳐 있었다고 들었다”며 “외부음식을 가져온 학생들이 때문에 자리가 없어 매점에서 음식

을 구매한 학생이 곤란해지는 문제도 종종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팀장은 “학생 편의를 위해 외부음식 반입을 감수하고 있었지만, 최근 이러한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문제가 많아져 반입금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생 측은 외부음식을 가져가지 못하게 된 것에 더해 도서관 내 취식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도 불만이다.

이연서(사학 2022) 씨는 “중앙도서관 매점은 판매하는 음식 종류가 비교적 적어서 매번 매점 음식으로만 식사하려니 힘들고, 식사 시간에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차장은 “도서관 내 취식 공간 부족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학습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휴게 공간을 늘리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잡페스티벌 성료 인사 멘토 대폭 증가

추찬호 기자 changlon1212@khu.ac.kr

【서울】 지난 10일 청운관에서 작년 대비 늘어난 멘토와 함께 ‘잡페스티벌(Job Festival)’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현직자 강의 ▲동문 특강 ▲직무별 1:1 직업상담으로 구성됐다. 직무별 직업상담에서는 ▲인사 ▲기획/전략/MD ▲경영지원/회계/세무 ▲이공계 ▲전문직/특수직 ▲공공기관/금융 ▲영업 ▲홍보/마케팅 분야의 멘토가 참여했다.

작년 대비 늘어난 멘토가 이번 잡

페스티벌의 특징이다. 작년 대비 11명이 증가했다. 특히 기존 학생 수요가 많았던 ‘HR(인사) 분야’ 멘토 비율이 증가했다. 6년 동안 경희멘토단 단장을 맡아온 박종명 미래인재센터 겸임교수는 “10명 이상의 인사 직무 종사자를 모셨다”며 “학생들이 특히 인사 분야 멘토링을 필요로 해 집중적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이날 여러 기업에서 참가한 멘토는 상담으로 취업준비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현대자동차에서 설계 직무를 맡고 있는 최종태(기계공학 2017) 동



직무별 1:1 직업상담에서 멘토와 멘티가 직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있다.

(사진=추찬호 기자)

문은 멘티 상담에서 “면접관의 시선에서 학부생 출신에게 전문지식이나 대단한 걸 기대하진 않는다”며 “배우려는 의지와 오버하지 않는 열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마케팅 분야에 종사하는 박수환(미디어학 2015) 동문은 멘티에게 “마케팅 분야는 특히 자신의 경험과 관련한 어필이 필요하다”며

“마케팅 분야를 준비한다면 공모전 수상이나 포트폴리오 작성을 꾸준히 쌓아나가며 실력을 키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멘티로 참가한 이주은(정치외교학 2021) 씨는 “주변에서 취업 관련 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멘토링이 큰 도움이 됐다”며 “특히 면접 관련 조언

이나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강조해야 할 점을 잘 알려주셔서 좋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향후 개선점에 “서울캠에는 이공계가 이학 계열과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정도만 있어 멘토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서울캠에서도 이공계 멘토를 향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융복합 프로젝트 활용 수업과 사례

-강사: 전문성 교수(경인교대)

-신청 기간: 2025.05.13.(화) - 2025. 06.02(월)

-신청 방법: e-Campus 로그인 -> 비정규 강좌 -> 교수법 -> [2025-1]5차 교수법 특강

-내용

- 1. 교수 학습의 4요소
- 2. 교수자와 학습자의 공감 방법
- 3. 시대의 대세: 문제해결학습
- 4. 융복합 프로젝트의 활용 및 사례

-수강 방법

: e-Campus 로그인 -> 내 강의실 바로가기 -> Learning -> [2025-1]5차 교수법 특강

미얀마 지진 피해 유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장학금 수혜자인 카더라킹 씨는 "이번 장학금으로 인해 더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며 소감을 밝혔다.

(사진=김규연 기자)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서울】 지난 30일 미얀마 지진 피해 학생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이 본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장학금으로 미얀마 유학생 7명의 2025 학년도 2학기 등록금이 전액 감면됐다.

이번 장학금 모금은 지난 3월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긴급 지원 조치다. 글로벌교육지원팀은 지진 직후 미얀마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해 현지 피해 상황과 학생들의 현 상태를 파악하고 경제·심리적 지원을 위한 특별 장학금을 마련했다.

전달식에서 김종복 대외부총장

은 "우리는 모두 경희 가족"이라며 "가족에게 도움을 받듯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학금 수혜 학생 대표자 카더라킹(Hospitality 경영학 2024) 씨는 "미얀마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더 좋은 학생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더라킹 씨의 가족은 이번 지진으로 인해 집이 파손돼 현재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는 "부모님은 옷을 수선하시는데, 지금은 직장도 없을 것이라 판단되지만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여쭙봐도 답이 없으시다"며 "이럴수록 한국에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식당 서빙 등 다양한 알바

를 통해 학비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장학금이 감면되어 좀 더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며 "돈이 있다면 언젠가 방학에 열리는 전공연수를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장학금 수혜자인 쉼썬우(미디어학 2023) 씨는 지진 발생일이었던 지난 3월 28일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태국에서 만남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진으로 인해 어머니는 태국에 갈 수 없었다. 쉼썬우 씨는 "인천 공항에서 미얀마 지진 소식을 듣고 어머니와 연락하려 했지만, 닿지 않아 무척 걱정했다"며 그때를 떠올렸다.

쉼썬우 씨의 어머니는 지진으로 인해 급하게 집을 나오다 다리를 다쳤다. 하지만 지진 여파로 병원들이 문을 닫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는 다리만 다쳐 생명의 문제는 없었지만, 병원이 모두 문을 닫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신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대학의 학비는 미얀마 대학 학비보다 훨씬 비싸다"며 "장학금을 받아 나와 부모님 생활에 보태고 싶다"고 덧붙였다.

글로벌교육지원팀 김호인 팀장은 "만일 정신적으로 힘들면 학생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며 다양한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글로벌교육지원팀에서 대규모 피해로 인해 장학금을 지원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교육지원팀 김은정 행정계장은 "앞으로 재난 등의 피해가 있을 때, 그 경중을 고려해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원 화재 용접 중 불티 원인

김유경 기자 ghajis@khu.ac.kr

【서울】 지난 5일 경희의료원 옥상에서 발생한 화재는 냉각탑 주변 안전 난간 설치를 위한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희의료원 옥상 화재는 지난 5일 오전 11시 33분경 발생해 약 10분 만에 진압됐다. 이후 12시 30분경 완전히 진화됐다. 당시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 인력 113명과 소방차 29대가 투입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는 옥상 냉각탑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용접 작업 중, 점심 시간에 작업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불티가 주변으로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다. 동대문 소방서 권다미 소방관은 "화재 원인에 대한 현장 감식은 모두 마쳤으며 결과는 2~3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희의료원 시설관리팀은 현재 피해 복구 범위를 파악 중이다. 또한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용접 등의 작업 실시 전 주변 위험물 제거 ▲중간중간 용접 불티가 튀지 않기 위한 주변 정리 ▲용접 작업 종료 후 30분간 현장 대기 등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설관리팀은 "해당 매뉴얼을 용접 업체에 교육할 예정"이라며 "용접 작업이 끝난 후 의료원 시설관리팀에서 현장을 최종 확인하고 발급한 현장 공사 허가서를 회수하는 등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주보 @khunews_jubo



인스타그램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메라로 QR 스캔 → 채널 팔로우

KHUNews_JUBO

마스터피스에서 아델란테까지 양캠 봄축제 개막

추찬호 기자 changlon1212@khu.ac.kr

이번달 양 캠프 대동제 프로그램이 구체화되고 있다. 서울캠은 오는 14일부터, 국제캠은 오는 26일부터 사흘 간 대동제를 개최한다.

서울캠 테마는 '마스터피스(MASTERPIECE) : 청춘'이다. '마스터피스'는 2018년부터 대동제 공식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캠 총학생회 노크(KnockH)는 "벚꽃이 주는 캠퍼스의 설렘, 낭만에서 시작해 학생들의 '청춘'을 빛낼 수 있는 축제를 만들자는 의미를 가지고 부제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축제는 '학생참여형'으로 기획됐다. 축제 마지막 날인 16일엔 가면을 쓴 학생 참가자가 무대 위에서 노래 대결을 펼치는 '복면KHU' 프로그램이 기획됐다. 4인의 최종 참가자는 사전 심사를 통해 선발됐다. 이들은 공연 화차별로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유다빈밴드의 '좋지 아니한가'를 부르며 대결을 벌인다.

이외에도 서울캠 총학은 ▲응원봉 꾸미기 ▲굿즈&타투 부스 ▲경희오락실 부스 ▲인간 테트리스 ▲마피를 잡아라 ▲탁구왕 김경희 등 학생이 참여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총학생회 부스에서 운영한다.

총학은 "청춘이라는 주제로 경희 구성원 모두 뜨거운 에너지와 젊음의 감성을 한데 모아 나눌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연 외부인존은 지난 축제와 동일하게 안전상 이유로 운영되지 않는다.

총학은 "지난해 봄 대동제에서 공연에서 프리존을 이용하는 외부인과 학교 사이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외부인이 교내를 접거하는 상황이 발생해 프리존은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초대 가수로는 1일차는 ▲키키(KiiiKiii) ▲로이킴 ▲박재범, 2일차는 ▲루시(LUCY) ▲엔플라잉(N.Flying) ▲빈지노 ▲백예린, 3일차는 ▲폴킴 ▲투어스(TWS) ▲이지(ITZY)가 참여한다.

국제캠은 '2025 아델란테(Adelante) : 경희의 순간으로'라는 이름으로 대동제를 개최한다. '아델란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동제 공식 명칭으로 사용된다. 축제 1일차에는 포스트모던음악학과의 공연과 '경희갯탈런트' 프로그램이, 3일차에는 총장, 부총장 축사와 걸스라 응원단의 공연이 진행된다. 학생 공연도 기획됐다.

공연 아티스트 명단 및 자세한 축제 정보는 추후 국제캠 대동제 아델란테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될 예정이다.

'최덕휴 展 풍경, 영원한 꿈' 성황리에 경희의 품으로 돌아온 최 화백

김유경 기자 ghajfs@khu.ac.kr

【서울】 광복군 화가 최덕휴 화백의 작품이 다시 깨어났다. 미술대학 미술관(KUMA)에서 열린 '최덕휴 展 풍경, 영원한 꿈' 전시가 지난 11일까지 이어졌다.

이번 전시는 우리학교 캠퍼스의 모습을 담은 '경희대학교', '경희의료원' 등의 작품을 비롯해 총 30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주로 1960~1980년 최 화백이 서울과 이국의 모습을 담은 풍경화가 전시됐다.

최 화백은 국내 최초의 서양 풍경화가 중 한 사람이다. 고흐, 마티스 등 유럽 거장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작품활동을 했다. 그는 '광복군 화가'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1945년 한국광복군 소속으로 항일전에서 활약하면서도 작품활동을 꾸준히 이어가 여러 전시를 열었기 때문이다.

최 화백과 우리학교의 인연은 1966년 그가 우리학교 사범대 미술교육과 교수로 부임하며 시작됐다. 그는 미술대의 초석을 다지는데 헌신했으며 1980년 사범대학장으로 임명됐다. 1998년 2월 타계한 이후로도 그의 후손들이 작품 100점을 우리학교 미술관에 기증했고 매년 최덕휴 기념전을 열며 그를 기억했다.

전시는 미술대학 주최, 대외협력처 후원으로 열렸다. 전시에 선보인 작품은 최 화백의 유족이 2001년부터 6년에 걸쳐 기증한 작품이다. 전시는 최 화백을 기억하



지난 12일까지 '최덕휴 展 풍경, 영원한 꿈' 전시가 미술대 미술관에서 열렸다.

(사진=김유경 기자)

기 위해 매년 개최되던 최덕휴 전(展)의 일환이다.

전시를 기획한 한영지 큐레이터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시대의 굴곡 속에서도 창작의 열정을 꺾지 않았던 화백의 예술 정신을 조명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 화백이 평생 몰두했던 예술적 주제인 '풍경'에 주목해 그 안에 담긴 조형적 깊이와 정서적 울림을 담으려 했다"고도 말했다.

'풍경, 영원한 꿈'이란 전시 주제는 최 화백의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담고 있다. 한 큐레이터는 "'꿈'이라는 단어는 어디론가 '돌아간다'는 회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 각자의 삶과 감

정에 따라 '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의미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를 찾은 한국외대 재학생 고은강 씨는 "작가님의 화풍이 인상적이고, 특히 수채화 그림이 마음에 들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다"며 "그의 수채화 작품 '보스톤의 Becon거리' 작품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최 화백의 아들이자 사단법인 최덕휴 기념사업회 대표 상임이사인 최희용 씨는 "경희대를 사랑하시고 미술계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한 교육인으로 기억에 남으면 좋겠다"며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는 광복군 화가, 최덕휴 화백이 더욱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학주보



대학주보 카카오톡채널이 생성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경희대학교소식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QR코드 스캔 → 채널 추가

kakaotalk



핸드볼 다시 전승 우승, “이젠 실업팀 이겨보고 싶다”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적수가 없다. 또 전승 우승이다. 지난달 17일, 핸드볼부가 강원도 태백 고원체육관에서 열린 ‘2025 대학핸드볼통합리그’에서 6전 전승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첫 대회부터 전승 우승을 거머쥐고 캠퍼스로 돌아와 휴식을 보내고 있는 대회 득점왕 나의찬(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주장)와 대회 어시스트 왕 이민준(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에게 우승기를 들어봤다.



각각 GK상, 득점상, 어시스트상을 수상한 김현민(스포츠지도학 2023), 나의찬(스포츠지도학 2022), 이민준(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 (사진 제공=레굴루스)

지난해 핸드볼부는 출전했던 대학부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올해 역시 대학 최고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장 나 선수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작년의 전승 우승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느껴졌다”며 “강팀이지만 실수로 인한 패배를 걱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회를 나서기 전 걱정이 무색하게 핸드볼부는 큰 점수 차로 전승했다.

가장 적은 점수 차가 7점 차 승리였을 정도로 막강했다. 하지만 선수들 생각은 달랐다. 점수 차가 가장

적었던 경기보다는 과격한 몸싸움을 버텨낸 경기가 기억에 남았다고 한다. 나 선수는 “점수 차가 가장 적었던 조선대전보다 원광대전이 기억에 남는데, 상대가 초반부터 몸싸움을 강하게 해서 우리가 전반에 흔들렸다”며 “후반에 마음을 다잡고 들어가서 우리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원광대전 전반은 10-9였으나, 후반은 20-9로 압도하며 12점 차 승리를 거뒀다.

우리학교는 지금껏 타 대학보다 월등한 체력으로 상대를 누르는 전

술을 써왔다. 이번 대회는 체력만큼 침착성을 유지하는 게 필요했다. 이 선수는 “이번엔 다른 팀이 우리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한 것 같다”며 “어떻게든 우리를 이겨보겠다고 달려드는 팀이 많았는데, 그 분위기에 휘말리지 않고 천천히 재미있게 하자는 게 이번 대회의 전략이었다”고 설명했다.

나 선수는 지난해 함께 전승 우승을 이뤄냈던 하남시청 차혜성(스포츠지도학 2021) 선수, SK호크스 변서준(스포츠지도학 2021) 선수와

같은 선배들의 뒤를 이어 팀을 이끌고 있다. 올해는 선배가 없는 팀에서 전보다 앞에 나서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부담은 대회 초반 경기장에서도 드러났다. 나 선수는 “주장으로서 첫 대회라서 책임지고 경기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첫 경기에 실수를 많이 했다”며 “다음 경기부터는 하던 대로 하면서 원래의 경기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지는 상황에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위닝 멘탈리티’ 역시 이번 우승 비결이었다. 이 선수는 “지난해 전승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이 올해도 함께 하고 있어 상대보다 우리 선수의 호흡이 더 좋다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입생 5명도 전부 뛰어난 선수들”이라며 칭찬했다.

그렇게 나 선수는 대회 득점왕을, 이 선수는 어시스트왕을 차지했다. 나 선수는 “팀원들과 코치, 감독 선생님께 감사하다”며 “동료들이 ‘의찬이 형 몰아줘라, 득점하게 해주자’고 말하며 많이 도와줘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 선수는 “상을 많이 받아봤는데 어시스트상만 없었다”며 “도와준 동료들 덕분에 받게 되

어 기쁘다”고 소감을 남겼다.

야구, 축구 등의 종목에 프로리그가 있지만, 핸드볼에는 프로가 아닌 실업리그가 있다. 대학 선수들은 졸업 후 실업리그 진출이 목표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핸드볼부는 실업팀과 경기하게 된다. 대학 무대에서는 항상 강자의 위치지만, 실업팀에는 도전자의 입장이자다.

나 선수는 “4학년까지 여러 경기를 치르면서, 공식전에서는 실업팀을 이겨본 적이 없다”며 “올해는 꼭 이겨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선수는 “상대가 강하다고 무조건 진다는 생각은 없고, 꼭 이기고 싶기에 한 번 달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두 선수 모두 대회 전승 우승과 실업팀 상대 승리를 목표로 하는 동시에, 성적 외의 가치도 챙기고 싶은 마음이다. 이 선수는 “지금 이 멤버가 나중에도 추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고, 경기에 지더라도 재밌었다고 기억할 수 있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 선수는 “민준이와 같은 마음이고, 실업팀을 상대로 딱 1승이라도 꼭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5세트 역전극, 배구부 홈경기 첫 승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국제】우리학교 배구부가 지난 9일, 국제캠 선승관에서 열린 ‘2025 KUSF 대학배구 U-리그’ 중부대와의 홈경기를 세트스코어 3-2로 승리했다. 시즌 첫 홈경기 승리다. 배구부는 3경기에서 2승 1패를 기록해 승점 5점으로 남자부 A조 7팀 중 4위에 위치한다.

우리학교는 1세트를 내줬지만, 2세트와 3세트를 잡아냈다. 4세트 패배 이후 마지막 5세트에 돌입했고, 13-14의 패배 위기에서 아포짓 스파이커 염시원(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의 득점으로 경기를 듀스로 끌고 갔다.

염 선수는 14-14에서 블로킹 득점과 스파이크 득점을 연이어 성공시켜 극적인 승리를 이끌었다.

승리 요인은 염 선수의 37득점이었다. 공격 시도 46회 중 30회 성공, 서브 득점 5회 등 뛰어난 활약이었다. 3세트를 서브에이스로 마무리했고, 5세트 연속 3득점으로 경기를



지난 9일, 배구부가 중부대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3-2로 극적인 시즌 첫 홈경기 승리를 거뒀다. (사진 제공=배구부 프런트 쿠볼리)

가져왔다. 경기 후 염 선수는 “신기하게 경기가 잘 풀렸다”며 “블로킹 하나만 하자, 스파이크 하나만 잘

파리자’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전부 현실이 됐다”고 웃었다. 올해부터 배구부 감독을 맡게 된

이행 감독은 “부상이 많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를 가져온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소감을 남겼다.

이어 “시원이가 경기 경험이 많지 않은데, 잠재력을 보여준 게 승리로 이어졌다”고 칭찬했다.

현재 배구부는 부상자가 많다. 이 감독은 “마윤서(스포츠지도학 2022), 김영태(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가 곧 프로 진출을 위한 드래프트에 나가야 하는데 다쳐서 아쉽다”며 “앞으로 부상 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구부는 지난해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다. U-리그 외에도 오는 6월 전국대학배구 고강대회, 7월 단양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 감독은 “U-리그에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여름에 열리는 대회는 결승까지 꼭 올라가 보고 싶다”고 밝혔다.

다음 경기는 14일 수요일 오후 2시 선승관에서 열리는 성균관대와 경기다. 지난해 플레이오프 3위까지 올랐던 강팀이다. 염 선수는 “오후 2시 경기라 바쁘시겠지만, 많이 와주신다면 시간이 아깝지 않게 정말 열심히 할 테니,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설-창간 70주년에 부쳐

항상 묻고, 기록하고, 함께 호흡하겠다

대학주보가 올해로 창간 70주년을 맞았다. 1955년, 언론이라는 개념조차 희박하던 시절, '경희의 목소리'를 담고자 시작된 지면은, 그간 수많은 격랑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경희의 현실을 기록해 왔다.

학생운동의 물결 속에서, 민주화의 현장에서, 교육개혁의 갈림길마다 학내 현안을 다루고 시대적 과제를 비추며, 구성원의 권익과 진실을 지향하는 일에 우리신문은 언제나 언론의 책임을 부여 잡았다.

학생운동의 거센 흐름 속에서, 유신과 민주화의 전환점마다 대학주보는 학내 현안을 넘어 사회의 민감한 쟁점까지 다루며 경희 구성원의 권익과 진실을 향해 나아갔다. 1980년 '서울캠퍼스 학원 민주화 투쟁', 1990년대 초중반 등록금 동결 요구, 그리고 최근의 무전공 도입과 등록금 인상 논의까지.

대학주보는 단순한 '학보'를 넘어, 학생 사회의 기억이자 경희의 집단적 의사를 드러내는 공론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지금, 다시금 스스로에게 묻는다. 70년을 이어온 이 지면은 오늘날 독자에게 어떤 의미일까. 누구나 뉴스를 만들 수 있고, 누구나 발언자가 되는 디지털 시대.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속도 속에서 대학 언론의 위치는 흔들리고 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대학 학보사 폐간이 이어지고, 수습기자 지원자가 없는 학보사도 늘고 있다. 지면 발행부수를 큰 폭으로 줄이거나, 아예 지면 발행을 없앤 학보사, 언론사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대학언론은 대학 내부의 주요 정책 변화와 교육 실험, 구성원 간 갈등과 협력의 과정을 가장 밀도 있게 조명하는 유일한 매체다. 또

한 교원과 직원, 직원과 학생, 교원과 학생을 잇는 교량의 역할도 맡는다. 단순한 소식지를 넘어 구성원 간 공론장을 형성하며, 고등교육의 방향성과 사회적 책무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작용한다. 특히 교육의 구조적 변화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시대, 대학언론의 균형 잡힌 시선과 비판적 질문은 그 존재 이유를 더욱 분명히 한다.

지난 한 해, 대학과 사회는 적잖은 변화를 겪었다. 등록금 인상 논의, 신입 총장 선임, 무전공 입학생 등의 이슈가 이어졌고, 국가적 차원에서 계엄으로 인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가 흔들렸다. 대학주보는 이 흐름 속에서 침묵하지 않았다.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감시와 기록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것이 바로 대학언론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제 70주년을 맞아, 우리는 단순한 보도를 넘어 구성원이 소통하고 사유하는 공론장이 되고자 한다. 변화하는 퍼블리싱 환경에서, 주력 플랫폼인 온라인 뉴스로 시의성을 잃지 않는 기동성을 강화하고, 뉴스레터를 통해 더 많은 구성원과 만날 것이다.

대학주보의 70년은 곧 대학 언론의 역사다. 수많은 기자의 땀과 고민이 지면 곳곳에 스며 있고, 그 끝에는 늘 독자가 있었다. 앞으로의 10년, 100년 또한 그러할 것이다. 우리는 묻고, 기록하고, 함께 나아가겠다. 시대가 바뀌어도 언론의 본령은 변치 않는다. 사실을 찾아내기 위한 집요한 탐구이며, 구성원의 삶에 책임을 지는 시선이다. 그것이 대학주보가 창간 70주년을 맞아 독자에게 드리는 약속이다.

세시봉

교육의 특권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본격적인 고교학점제가 시행됐다. 고교학점제란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 수강해 누적 학점에 도달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해 학생 주도 교육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대학생만의 전유물이었던 자유롭고 주도적인 학습 설계의 기회를 고등학생도 갖게 됐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일찍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고교학점제 그 자체만은 아닐 것이다. 매일경제가 종로학원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자사고 10곳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됨에 따라 평균 100.2개 과목을 개설했다. 반면 1학년 학생 수가 30~60명 수준에 불과한 지방 일반고 5곳의 평균 개설 과목 수는 75.6개에 그쳤다.

결국 고등학생들이 지역·학교 간 격차에서 오는 박탈감 또한 일찍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 주도'가 취지라고는 하지만, 학생이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업은 여전히 학교와 지역의 수준에 한정됐을 뿐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이 단기적으로 과목 선택의 격차를 넘어서, 중장기적으로는 교육 자원의 편중과 대학 입시 기회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기존에도 지적돼 온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불평등이 아래로 대물림되는 구조를 고착화하는 것이다. 그러한 대물림은 아래로는 고등학교 입시, 위로는 다시 대학 입시의 불평등으로 퍼져간다.

학교·지역별 불균형 해소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은 학생들의 주도적 학습을 보장하기엔 충분치 않다. 교육 여건과 자원이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행정 지원과 재정 투입이 선행됐어야 했다.

고교학점제는 분명 기존의 획일화된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 이상을 위해서는 형식적 자율성을 넘어선 실질적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교육 기회의 격차가 대학 서열화 구조를 공고히 한다면, 고교학점제는 오히려 불평등을 제도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이자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할 공공재다. 제도 자체가 소수에게만 실질적인 선택권과 기회를 부여한다면, 그 교육의 자유는 특권일 뿐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등록금에 걸맞는 교육 환경 필요

교육환경에 초점 맞추길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생대 학생회장이 졸업 시 이학사 학위를 받음에도 공학사 수준의 등록금을 내야 하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생대 학생은 동일하게 이학사를 받는 이과대보다 연간 128만 원 비싼 공대 수준의 등록금을 납부한다.

공학사 과정을 운영하는 공대는 실험·실습 장비 등 추가 교육 인프라에 비용이 많이 들어, 이학사 취득 학과보다 등록금이 더 비쌀 수 있다. 하지만 우리신문 조사 결과, 공대 수준의 등록금을 납부하는 우리학교 생대 설계·실험·실습·실기·입상 과목은 공대보다 적었다.

생대 학생은 기자재나 실습실 환경에도 아쉬움을 표한다. 등록금에 비해 예산이 책정된다는 학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 강좌 수 부족, 열악한 강의실 환경, 노후화된 실습 공간 등은 여

전하다.

결국 학생 요구는 등록금과 비례하는 교육 경험이다. 높은 등록금이 정당하려면, 그만큼의 교육 여건과 인프라가 보장돼야 한다. 수치만 앞세운 예산 배분은 학생이 체감하고 공감하기 어렵다.

생대 학생은 단순한 개선 약속보다 가시적인 변화와 명확한 로드맵을 원한다. 등록금 책정과 단과대 예산 배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학생과의 간담회로 실험·실습 환경 현황과 예산 집행 내역을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는 "등록금 책정 기준이 실험·실습 비중과 운영비 등을 반영한 결과"라며 졸업 학사에 따라 등록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등록금 책정 기준을 반복해 설명하기보다, 현재 교육환경에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학생이 느끼는 문제의 출발은 등록금일 수 있지만, 핵심은 등록금에 걸맞는 교육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데 있다. 학교는 학생과 충분히 소통하며,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는 실질적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



만평 등록금과 비례하지 않는 교육 경험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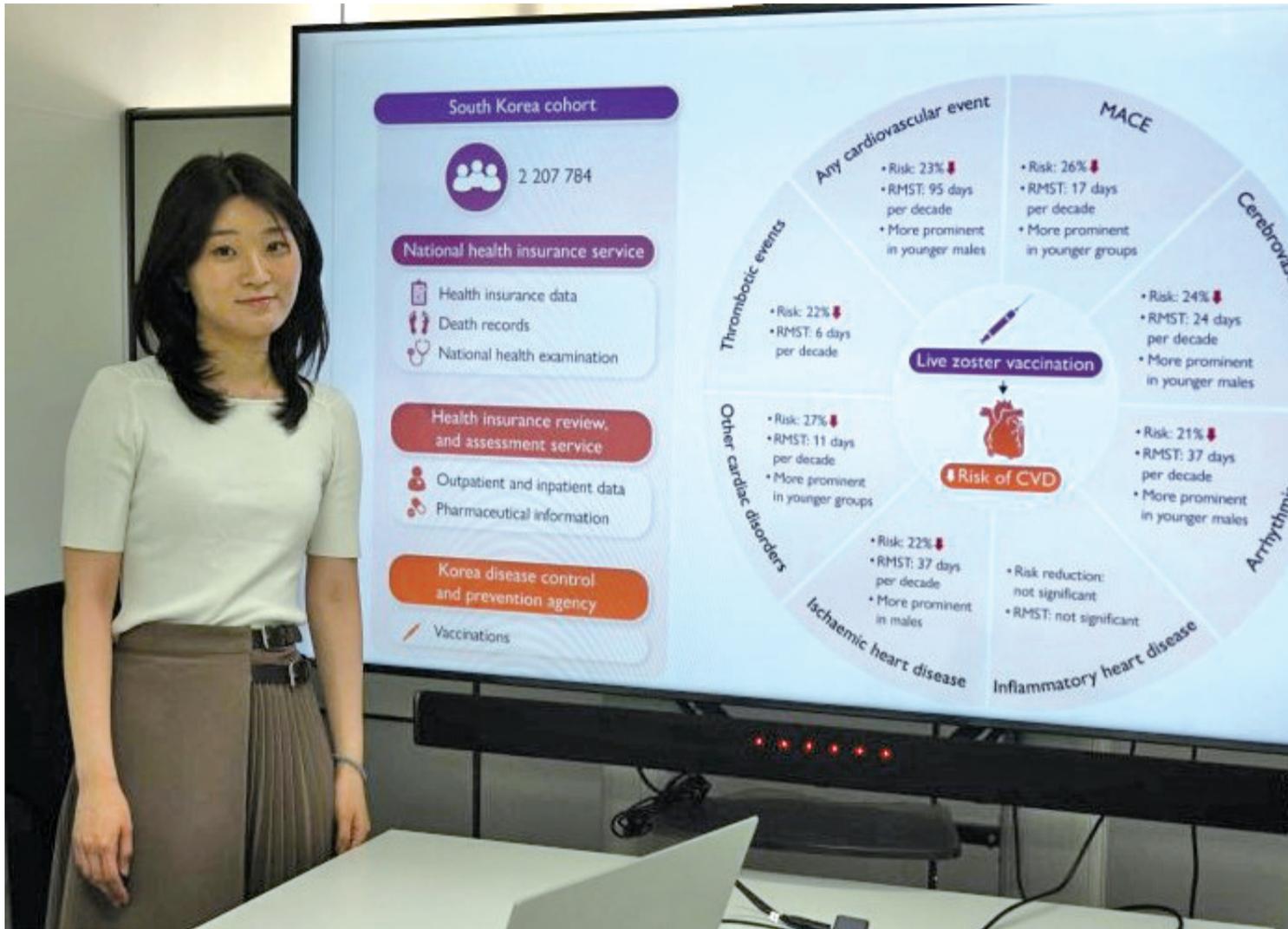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하시언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아이피디

16 사람



이 씨는 "앞으로 의학 석사를 하며 심장내과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으면서도 또 레지던트를 하며 의사가 될 생각도 있어요"라며 포부를 밝혔다. (사진=김규연 기자)

교내 학부생 최초 '네이처 메디슨' 제1저자

"선택한 것에 꾸준히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어"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학부생 최초 네이처 메디슨 1저자 이수지(의학 2019) 학생

다른 의대생 논문 기사를 보며 부러워하던 의예과 신입생에서, 의학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네이처 메디슨(Nature Medicine)에 제1저자로 논문이 실린 학부생이 있다. 세계 최초로 식이 철 결핍의 글로벌 질병 부담 연구를 수행한 이수지(의학 2019)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예과 때 다른 대학 의대 학부생들이 논문을 써내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당시 우리학교엔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와중 허영범(의학) 학장과 학생회의 노력으로 우리학교도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이 개설됐다. 학부생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연구도 많이 참여했다면 좋겠다는 의과대학의 바람이었다.

허 학장의 소개로 이 씨는 학부 연구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이 씨가 들어간 연동건(의학) 교수의 연구실은 자유도가 아주 높았다. "지도교수이신 연 교수님께서는 아주 활발히 연구하시고 학부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세요." 높은 자율성 덕분에 이 씨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과 연구할 수 있었다. "논문의 글을 쓰는 건 의학과 학생들이긴 하지만 통계적 관점에서 연구를 바라보거나, 데이터를 다루는 건 다른 전공 학우들이 힘써주고 있어요."

20편의 SCI급 논문을 내기까지 끝없는 논문 탈락, 끊임없는 수정

둔둔한 교수님과 믿음직스러운 동료와 함께 시작한 연구였지만, 처음부터 논문을 낼 수 있었던 건 아니었다. 연구생활을 시작하고 6개월간 논문 7편을 썼지만 모두 논문 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럴수록 이 씨의 열망은 더욱 강해졌다. 토요일을 제

외한 모든 요일에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연구하고 논문을 썼다.

논문 작성 때 생기는 비평 코멘트를 처리하며 논문을 수정하는 데도 이 씨는 오랜 공을 들였다. 비평 코멘트는 더 좋은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주기 때문이다.

이 씨가 대상포진 백신으로 심장병 발생시기가 늦춰지는 것에 관한 논문을 작성할 때, 한 코멘트서 'RMST 분석법'을 추천받았다. "처음 들어본 분석법이라 이게 무슨 분석법인지부터 하나하나 공부해야 했어요. 연구에 적용시키면서 추천한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이 씨와 연구팀은 RMST 분석법을 사용한 선행 논문을 찾아가며 적용했다. "10년 동안 추적할 때 평균적으로 95일 더 심장병이 늦게 걸린다는 직관적 수치를 제시한 RMST 분석법을 통해 다른 관점으로 이 연구를 볼 수 있었어요."

비평 코멘트를 통해 더 나은 논문을 쓸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뻐하고

이 씨는 말한다. "비평 코멘트를 처리하다 보면 논문을 거의 다시 쓰는 수준으로 수정하게 되기도 하지만, 생각하지 못한 포인트를 잡아줘서 많은 도움이 돼요."

각고의 노력 끝에 이 씨는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으로 SCI급 논문을 20편 이상 출판하는 기쁨을 토했다. SCI는 학술적 기여도가 높은 학술지를 선정한다. SCI급 논문은 SCI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될 수 있는 수준의 연구를 한다는 의미다.

이수지 씨 참여 연구 세계 최고 의학 학술지에 실려

평소 혈관과 심장에 관심이 많던 이 씨는 빈혈을 연구했다. 빈혈의 수십 가지 원인 중 식이 습관에 의한 철 결핍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쉽고 비용 효율적으로 공중보건의 질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한 개인에 드는 의료 비용을 부담할 수 있지만, 저소득 국가가 어려워요." 공중보건의 질이 올라가

면 빈혈에 드는 의료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게 이 씨의 설명이다.

이 씨가 주관한 '식이 철 결핍의 글로벌 질병부담 연구'는 빌 게이츠 재단, 워싱턴 대학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이 협력해 공저자가 900여 명인 대규모 연구였다. 이번 연구는 공저자가 많은 만큼 약 1만 개의 코멘트가 달려 논문을 계속 수정해야 했다.

이 중 한 코멘트에서 이 씨의 선입견을 버리게 한 코멘트가 있었다. "저소득 국가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상황 때문에 식이 철 결핍을 해결하는 게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코멘트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포인트여서 인상 깊었어요."

세계 160개국의 데이터를 모아 빈혈의 다양한 원인 중 식이 철 결핍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수학적으로 계산했다. 연구 결과, 여성과 아이들이 식이 철 결핍에 더 취약했다.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지만, 이 연구의 특별한 점은 정확히 몇 프로인지를 밝혔다라는 거예요." 이 씨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6%의 인구가 빈혈과 관련된 식이 철 결핍을 겪고 있다.

"식이 철 결핍은 고소득 국가보다 저소득 국가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저소득 국가에 특히 영향력이 큰 연구예요." 이 씨는 저소득 국가의 공중보건 수준을 올리는 데 이번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학부 연구생에서 심장·혈관 질병 연구자로서의 꿈

어느 날 강동 경희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진은선(의학) 교수는 실습 도중 이 씨에게 심장물동전환을 맡겼다. 심장물동전환이란 부정맥을 정상적인 리듬의 심장 율동으로 전환하는 시술이다. "심장물동전환을 처음 해봤는데,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전 심혈관·심장 관련 질병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의학 석사를 하며 심장내과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또 레지던트를 하며 의사가 될 생각도 있어요." 이 씨는 의학도로서 연구도, 의사로서의 업도 모두 이루고 싶다고 말한다.

학부 연구생으로 우수한 논문을 쓰려는 학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을 묻자 이 씨는 "자신이 선택한 것에 집중하고, 또 꾸준히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문 심사를 수십 번 떨어져도 다시 논문을 집필한 이 씨의 집중력과 꾸준함이 '세계 최초', '세계 최고' 타이틀을 이 씨에게 안겨주었다. 앞으로 이 씨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기대한다.